청년을 위한 EPIC 목회
: 예능청년교회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심성수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Sungsoo Sh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EPIC MINISTRY FOR YOUNG ADULTS

: A CASE STUY OF YENEUNG YOUNG ADULT CHURCH

Sengsoo Sim

Seoul, Korea

This study examines a few major phenomenons including COVID-19 that caused significant social issues in Korea and evaluates the effects it has triggered in the Korean young adult ministry. After analyzing the issues this study will introduce Leonard Sweet's EPIC model. In addition, by reviewing a case study of Yeneung Young Adult Church in Jongro district of Seoul, this study will present the EPIC model as an alternative for the new normal young adult ministry.

The Korean society has seen the lowest birth rate ever in a rapidly aging society. As a result the Korean society is experincing a significant decline in population, and a rapid change of the population structure which is causing numerous social issues. Decline in population and change of the population structure directly leads to the decline of church population and sunday school crisis. The worldwide recession has deeply affected the Korean economy which is having a economic crisis of its own. The Korean church has seen the end of its wealthy glory days and has now entered the period of famine. Covid-19 has introduced a contact-free society, and individualism has undermined the

value of community. As a result of these numerous scocial changes, the young generation is leaving the church community. Therefore, the young adult ministry has been expereincing drastic changes.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and Interactive, Connected community Church of the EPIC model applied in Yeneung Young Adult church's ministry and suggests it as an alternative for the new normal young adult ministry. This study suggests EPIC ministry as an altrenaative with the expectation that young adults will experience God, participate with a sense of ownership, embody the image of Jesus Christ in theirs lives, and restore spirit of church community

국문초록

청년을 위한 EPIC 목회

: 예능청년교회 사례연구

심성수

서울, 대한민국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몇 가지 주요 시대적 현상들이 가져온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청년목회현장의 문제와 위기를 진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위기 가운데 필요한 뉴노멀 시대에 알맞은 청년목회의 대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하나의 대안을 본 연구는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예능청년교회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EPIC이론을 적용한 청년목회를 뉴노멀 시대 청년목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인구감소가 초래되고, 더 나아가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남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교인 감소와 다음세대의 위기로 직결된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제불황 속에서 한국사회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교회에도 부요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기근의 시대가 찾아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의 비대면화는 가속화되고 개인주의는 심화되어 공동체성은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적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를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 특별히 청년목회 현장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능청년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EPIC이론의 경험적 교회, 참여적 교회, 이미지 지향적 상호작용적 교회, 연결된 공동체적 교회를 연구함으로 뉴노멀 시대에 청년목회의 대안을 제시한다. 교회를 떠나가고 전통 교회의 모습에 지쳐있는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참여하는 주체가 되고, 복음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삶 속에서 구체화되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섬기는 청년목회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는 EPIC목회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목차

감사의 글 xi

I. **서론** 1

A. 연구 동기와 목적 1

B. 연구 방법과 구성 3

II. **뉴노멀 시대 청년목회의 이해** 5

A. 한국사회의 변화 5

1. 수축 사회 5

a. 축소의 시대: 인구구조 변화 5

b. 기근의 시대: 경제성장 정체 10

2. 핵개인 사회 13

a. 비대면의 시대: 지능화와 고령화 13

b. 생존의 시대: 경쟁과 자립 16

B. 청년목회의 이해 18

1. 청년 세대의 탈교회화.....18

2. 청년목회 구조의 변화.....21

III. **레너드스윗의 EPIC 이론 이해** 25

A. 레너드 스윗의 사상 25

B. EPIC 이론의 특징 26

1. 경험적 교회(Experiential Church): 이해가 아닌 경험 27

2. 참여적 교회(Participatory Church): 대리가 아닌 참여 31

3. 이미지 지향적, 상호작용적 교회(Image-driven, Interactive Church): 글이 아닌 이미지 35
4. 연결된 공동체적 교회(Connected Community): 개인이 아닌 공동체..37
III. **EPIC 이론을 적용한 청년목회** 42
A. 예능청년교회의 목회와 사역 42
1. 예능청년교회의 배경과 환경 42
2. 예능청년교회의 비전과 사역 44
B. EPIC 이론을 적용한 예능청년교회의 사례연구 45
1. 경험적 교회 45
a. 실재적 예배(Input) 45
b. 실천적 사역(Output) 60
2. 참여적 교회 72
a. 청년들의 주체성 72
3. 이미지 지향적 교회 78
a. 예능청년교회 브랜드 78
4. 상호작용적 교회 85
V. 결론 92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공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신 번동성결교회 손병호 목사님과 예능교회 조건회 목사님, 성경과 목회에 깊은 통찰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신 조병호 박사님과 레너드 스윗박사님, 끝까지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영래교수님, 그리고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준 동역자 이명신목사님, 서다니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능청년교회라는 사역 현장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사역에 동참해준 예능청년교회 사역자와 청년들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논문을 쓰는 동안 이해해주고 시간적으로 배려해준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4. 5

심성수

I.서 론

A. 연구의 목적

미래사회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이미 '수축사회'로 진입을 했으며, 초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국가소멸론이 현실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수도 감소하고 교인수가 감소하고 있다. 특별히 학령인구도 감소 추세인데, 이것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주일학교와 청년목회 현장이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로 인해 사회도 늙어가고 교회도 함께 늙어가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늘어가고,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와 더 나아가 교회를 재정적으로 세워가는 중심축이 되는 노동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 위기를 논할 때 과거에는 세속화, 개인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문화적, 사상적 요인들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구 구조적 요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정체 그리고 경제 위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경제 위기는 찾아오고 경제 성장과 정체는 반복되곤 한다.

그러나 수축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넘어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한다. 안 그래도 정체되어 있는 경제성장이 코로나19까지 지나가면서 하향세를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국가적 경제 위기에 교회도 늘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은 교인들의 헌금에 바로 반영된다. 한국교회가 교인 수도 감소하고, 헌금도 감소하면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위기는 없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축사회와 더불어 한국사회를 가리켜 이제는 '핵개인 사회'라고 부른다. 이제는 핵가족시대를 지나서 가족보다도 개인이 더 중요한 핵개인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화가 일상이 되고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인공지능(AI)의 보급화로 인해 이러한 '핵개인화'는 더 심화되었다. 이제는 가족이 함께 하지 않아도, 공동체에 굳이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개인이 가장 우선시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것은 MZ세대에 해당되는 청년세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 세대 가운데 서서히 퍼져가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 청년세대는 기존의 권위를 거부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한다. 생존과 자립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개인의 삶을 위해 홀로서는 시대가 도래했기에 개인주의가 더 심화될 것이다. 비대면 시대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대면 소그룹 모임에 대한 책임과 인식도 또한 많이 약화되었 교회 공동체성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어느 한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구속 받기를 거부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접근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핵개인 사회에는 기존 가족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치열한 경쟁과 개인의 생존을 위하여 만혼과 비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연령범위가 어느때보다도 넓어졌기에 청년세대가 당분간은 가장 많은 목회현장이 청년목회가 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나 경제성장 정체 문제는 한 개인이나 한국교회가 대안을 만들 수 없는 국가적,

사회적 과제이다. 개인의 삶이 우선시 되는 핵개인 사회의 가치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비판만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 특별히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니 어쩌면 이제는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청년 MZ세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목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교회의 위기 가운데 문을 닫고 무너지는 공동체도 안타깝지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준비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목회현장이요 생명 공동체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변화를 제한적이지만 청년목회 현장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청년목회의 대안이 되는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에서 청년목회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EPIC이론에서 제시하는 경험적이고, 참여적이고, 이미지 지향적, 상호작용적이고, 연결된 공동체적 목회 적용한 예능청년교회의 목회현장을 소개하고, 이 시대 청년목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목회사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논문은 교회 안팎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목회가 시대에 맞게 세워지기 위한 대안과 그 대안모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토대로 주제와 관련된 동서양 서적과 학술 논문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 중심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현대 사회적 문제와 배경들에 대한 문헌들과 통계자료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들을 정리하고 한국교회 청년목회의 현실을 현상적, 반성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제시되는 위기 현실 속에서 교회가 청년목회를 위하여 어떠한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역의 비전과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본 논문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I장에서는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 및 구성을 다룬다. Ⅱ장에서는 현대사회를 분석하고 연구한 문헌들과 사회적 문제들에 통계자료들에 근거하여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정리하고 그로 인한 청년목회 현장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을 소개하고 청년목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IV에서는 EPIC이론을 적용한 예능청년교회의 목회를 대안모델로 제시하며, 그 목회사역을 소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논의를 요약하고 평가하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II. 뉴노멀 시대 청년목회의 이해

A. 한국사회의 변화

1. 수축 사회

산업혁명 이후 500년 이상 세계는 파이가 커지는 팽창사회였다. 그런데 이제 뉴노멀의 시대가 찾아오고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성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역대 최고 수준의 양극화 등으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져 세상이 수축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도 성장을 기대하고 낙관하던 팽창사회가 끝이 나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수축사회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미래사회학자 홍성국은 한국사회를 수축사회로 명명하면서 수축사회를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치, 경제, 환경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의 기초 골격이 바뀌고 인간의 행동규범, 사고방식까지 미치는 현상"[1]으로 정의한다.

a. 축소의 시대: 인구구조 변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수축사회로 진입한 가장 큰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모든 국가나 사회는 인구가 증가하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전제로

[1] 홍성국, 『수축사회』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8), 7.

조직되었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선진국들은 인구가 아직은 증가하고 있는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형 인구구조를 거쳐 이제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바뀌고 있다. 조만간 페스트 시대와 같은 인구감소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한다.[2] 특별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인구감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국가적으로는 노동력 감소와 가족기능의 악화 및 사회적 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통계청은 2023년 12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총인구조사를 통하여 2022년까지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를 5,167만 명으로 집계했고, 2030년에는 5,131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수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4]은 2022에는 0.78로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그리고 그 지속기간은 2002년부터 21년 동안 1.3미만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 인구는 11만명 자연 감소했다. 태어난 출생아가 25만 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수는 36만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은 2020년 첫 자연감소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5]

문제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에는 대체수준(2.10) 아래인 2.06으로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

[2] Ibid., 24.
[3] 통계청. (202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1.
[4]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로, 현재 인구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은 2.1명이다.
[5] Ibid., 24.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 2010년 1.23, 2022년 0.7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추계조사를 통해 2024년 합계출산율(중위 추계)은 0.7명 선이 깨지며 0.68명을 기록하고, 2025년엔 더 내려가 0.65명으로 바닥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6]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4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인구 5000만선이 깨질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 문제를 가속화 시키고 생산인력인구의 감소를 야기한다. 1960년에 73만 명으로 총인구의 2.9%였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에는 898만 명(총인구의 17.4%)에서 2030년에 1.4배 증가하여 1,298만 명이 되고, 2072년에는 1.9배 증가하여 1,727만 명(총인구의 47.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26일에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보건통계 2022'(2022년 7월 4일 발표) 주요지표별 분석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OECD 평균 80.5세보다 3년이 길다.[7] 통계청이 2022년 10월 17일에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17.5%이며, '25년에는 20.6%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20%)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8]

저출산과 고령화가 야기시키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중대한 문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이다. 생산연령인구(15-65세)는 2022년에 3,675만 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한다. 이들은 인구구조 피라미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30년에는 3,41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총인구의 45.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9] 이러한 추세로는 대한민국의

---

[6] Ibid., 87-88.
[7] 보건복지부. (2022). 『OECD 보건통계 2022』, 보건복지부, 1.
[8]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 통계』, 통계청, 21.
[9] 통계청. (202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7-12.

인구구조가 극단적인 항아리형으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역피라미드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게 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령인구가 2027년까지 5만여 학급에 해당하는 131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고출산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위해 건립하였던 학교 시설과 교사 양성 인프라는 과잉 시설이 되면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폐교는 단순하게 잉여 시설의 처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폐교로 아동이 있는 가족은 그 지역으로 이주해오지 않을 것이며,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가게나 시설 역시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폐교는 지방소멸을 유발하고 가속화 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지역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율) 0.5 미만 지역]이 2021년 108개로, 전체 시군구의 48%에 육박하는 등 지역소멸 위험도 확산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징병 대상 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병력자원 부족과 국방력의 감소를 초래한다. 병역자원은 2020년 33만 명에서 2027년 24만 명으로 4분의 1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인구증가 시대에 설계된 교육과 병역제도의 정합성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10]

저출산과 고령화와 그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는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로 진입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멀리서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수축사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지용근 대표)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에 1,146만 명(총인구의 22.5%)이었던 개신교인구가 2022년에는 774만 명(총인구의

[10] 성창훈. (2022). 세계화의 재구성, 대응은?, 『나라경제』, 382, 61.

15%)로 급감했다. 이 추세를 반영하여 10년간 단순 하락 기울기를 반영, 향후 10년 뒤를 예상하면 개신교 인구 비율은 최악의 경우 10.2%까지 감소할 수 있다.[11] 이 속도로 하락한다면 향후 10년 뒤에는 개신교인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추론이다.

미래목회전략연구소 최윤식 소장은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하면서 무서운 경고를 한다. 먼저 그는 한국교회는 사회의 고령화보다 10년 빠르고 그 비율도 10% 높으며, 교육부는 사회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감소보다 10년 빠르고 비율도 10% 높게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최윤식 소장은 30-40년 후 한국교회 실제 출석성도 비율이 2023년 현재 천주교 수준의 6%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실제 출석하는 총 교인수도 250만 명 선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두려운 미래를 예측하는데, 첫째는 남은 교인의 대부분이 노인이 되는 미래이다. 2060년경이면 한국교회도 남은 성도의 70-80%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음세대와 주일학교의 붕괴이다. 2030년까지는 개별교회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2035년에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역사상 대규모 감소가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2055년에서 2060년에는 대학부를 포함한 교육부(1-29세)의 전체 숫자가 19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90만 명 중 실제 출석수는 70-80만 명 미만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양적인 감소가 질적인 붕괴도 동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12]

---

[11]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인의 종교현황과 인식, 『넘버즈』, 206, 6.
[12] 최윤식.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난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3), 38-41.

b. 기근의 시대: 경제성장 정체

국가의 경제위기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수축사회가 경제의 위기를 동반하는 것은 여러 지표가 설명하고 있다.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OECD 38개국 대상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계량경제 모형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 상승하고 30~64세 비중이 1% 하락할 경우 연평균경제성장률은 약 0.38%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반면에 인구가 1%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8% 상승하여 총인구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경제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수축사회는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국가적으로 노동력 부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 출생 인구)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당분간 노동력은 공급과잉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이탈하는 2030년대 중반경부터 수요에 비해 노동력 공급이 본격적으로 부족하기 시작할 것이다. 노동인구의 구매력이 노인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노동력 부족은 생산 인구 부족 뿐 아니라 소비 인구 부족 즉, 내수 위축으로도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 시킬 것이다.[14] 노동가능인구는 감소하지만 초고령화로 인해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보장

[13] 삼일PwC경영연구원. (2023). 인구구조변화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Insight Flash』, 6.
[14] 이삼식. (2023). 초저출산현상 극복과 인구구조변화대응, 『아시아 브리프』, 3(26), 4.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통계청에 의하면, 1960년대만 해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총부양비는 노년 5.3명이었다. 2022년에는 그 수치가 24.4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로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총부양비는 노년 103.3명에 육박할 전망이다.[15] 대표적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 수령 인구는 증가하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인구는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은 고갈될 것이다.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역시 보험료 이용자는 증가하나 납부자는 감소하여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다.[16] 이렇게 정부 부담은 증가하며, 이는 세금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경제구조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10년 넘게 20-25%에 육박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에는 31.9%였는데 2022년에는 37.5%로 증가했다. 매년 거의 1%에 가깝게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매년 감소하는데, 이직하는 사람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직하는 사람들은 10명 중 3.6명이 임금이 감소되었다. 국내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2023년 기준 1,033조에 육박한다. 가계 GDP 대비 부채 규모는 105-106%로 역대최대규모이다. 가계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은 40.3%로 월수입의 40.3%를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노령층 빈곤율은 43.2%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렇게 모든 지표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교인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이다.[17]

실제로 경제성장의 정체,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성도의 감소 시작, 교인들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2012년 이후 교회의

---

[15] 통계청. (202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69.
[16] 이삼식. (2023). 초저출산현상 극복과 인구구조변화대응, 『아시아 브리프』, 3(26), 4.
[17] 최윤식.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난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3), 60-62.

헌금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 교인의 1인당 월평균 헌금액이 1998년에는 83,000원에서 2012년에는 222,000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소폭 감소한 175,700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소폭 증가한 195,000원이었다. 코로나19를 지난 2023년 월평균 헌금이 2017년에 비해 총액은 증가했지만, 소득증가율이나 화폐가치의 하락을 반영하면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행해진 헌금의식 조사결과에 다르면, 월평균 헌금이 늘었다고 대답한 교인이 7%였던 반면에, 월평균 헌금이 줄었다고 답한 교인은 23%였다.[18] 이런 교인들의 재정상황 악화는 교회의 재정상황 악화로 직결된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하고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재정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한국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하고, 교세가 크게 확장되며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재정적으로 크게 흔들림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교회 헌금 70%이상이 상위 30%의 교회들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교회 80%는 헌금 증가의 가능성이 없다.[19] 미래목회전략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50년 한국교회의 헌금은 지금의 3분의 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

이러한 재정 기근의 시대는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 사례 문제와도 연결된다. 실제로 한국교회 100명 미만 교회 목회자들의 월평균 사례는 최저임금보다도 적다. 2050년 은퇴 목회자 10명 중 9명은 생활비를 보장받지 못한다.[21] 생활비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늘어남에 따라 신학생의 숫자가 줄고, 주일학교와 청년사역을 감당할 젊은 목회자의 숫자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필연적인

---

[18]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개인교인의 헌금의식조사, 『넘버즈』, 196, 4.
[19] 헌금이 증가하는 소수의 교회들은 수평이동효과를 누리는 교회들이다.
[20] 최윤식.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난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3), 68.
[21] Ibid., 73.

결과이다. 그리고 이전보다 적은 수의 목회자들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하면서 목회자 번아웃(burn-out)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역의 질은 떨어지고, 교회의 부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 핵개인 사회

빅테이터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해온 '마인드 마이너' 송길영 박사는 현대사회를 가리켜 '핵개인 사회'라고 일컫는다. 여기서 '핵개인'은 '핵가족'보다 더 작은 단위의 개인으로 권위와 집단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존재를 말한다. 핵개인의 시대는 핵가족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가족보다도 개인이 우선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신조어이다. 그동안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오늘의 시대를 반영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a. 비대면의 시대: 지능화와 고령화

핵개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디지털 도구의 지능화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기존에 힘을 발휘하던 권위가 쪼개지고, 100세 이상의 생애주기에서 조직의 테두리와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져 흩어지고, 결국에는 각자의 역량과 생존을 고민하며 홀로서는 개인의 시대가 왔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동력은 '지능화'와 '고령화'이다.

1970년대 산업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핵가족의 시대가 열렸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회사와 공장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대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3-4인 가족 중심의 핵가족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2009년에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보급되면서 또 한 번 급격한 시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기 시작했고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뒤흔들면서 스마트폰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을 넘어서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일상의 시작과 끝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되어버렸다. 핵개인화 시대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지능화'와 '자동화'를 통하여 과거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이제서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게 되었다. 과거 핵가족시대가 열렸을 때는 부부와 아이가 있는 것이 가족의 표준이었기 때문에, 표준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들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핵개인 시대에는 개인의 삶이 중요시 되고 혼자 사는 삶이 존중 받기에 혼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코리아 2024』에서는 첫 번째 키워드로 '분초(分秒)사회'를 꼽는다. 분초사회는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해진 만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N배속으로 콘텐츠를 돌려 볼 만큼 시간 아끼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를 지칭한다.[22] 그리고 더 다양한 활동에서 재미를 추구하며, 재미와 한시도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 소비 행태를 일컬어 '도파밍' 트렌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짧고 강렬하게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숏폼' 컨텐츠가 유행하면서 젊은 세대의 집중력과 인내심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22] 김난도 외. 『트렌드코리아 2024』 (서울: 미래의 창, 2023), 133.

트렌드는 더 시각적이고, 본능적이며, 직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 요즘 트렌드는 사람들이 재미라고 느끼는 속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지고, 그 지속 시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티비에 둘러앉아 볼 수 있는 개그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재미있는 콘텐츠였다면 요즘은 각종 플랫폼에 눈과 귀를 사로잡는 콘텐츠가 즐비하다. 게다가 이러한 콘텐츠들의 길이는 계속 짧아지고 있다. 15초 내외의 짧은 길이로 큰 성공을 거둔 틱톡과 가장 큰 인기를 보이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각각 릴스와 쇼츠를 통해 우리의 1분 1초를 가져가고 있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전문 기업 콜랩아시아(Collab Asia)에 다르면, 유튜브가 2020년 처음으로 쇼츠 콘텐츠를 선보인 이후, 유튜브 시청자 뷰의 약 80% 이상이 쇼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시청자가 60초 분량의 쇼츠를 10번 이상 보는 빈도가 약 10분 길이의 유튜브 영상 한 편을 시청하는 경우보다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이전보다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녀야 하는 세대이며, 재미없는 것은 1초도 견디지 못하는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는 어떤 공동체에 쉽게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또한 어떤 공동체나 개인을 평가할 때도,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23]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지능화'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의 대사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 기존에 권위라고 생각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권위로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의 자녀들은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부모들에게 의지했고, 심지어는 주변의 권유나 압박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 없는 진로를 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삶의 기준을 개인이 세우고

[23] Ibid., 242-243.

그 기준에 맞는 선택도 내가 함으로 그 누구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핵개인 시대의 중요한 다른 키워드는 '고령화'이다. 핵개인 시대가 가져오는 변화는 바로 '효도의 종말'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효도 문화가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섬기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이 않는다. 이것은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를 부양할 여력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여력조차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b. 생존의 시대: 경쟁과 자립

핵가족에서 더 쪼개진 핵개인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왔다며 가족 간의 부양과 돌봄의 역할은 줄고 AI와 기술의 도움으로 개개인이 온전히 독립적인 삶을 사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했다. 환경이 바뀌면 생활방식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한다. 노인의 수가 청년을 추월하고 사회적관계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었다. AI가 일상의 보조자로 등장했지만 경쟁은 더 치열 해졌고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개인주의의 확산은 더 나아가 개인이기주의와 한국사회가 그동안 보존해오던 공동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지능화와 자동화 뿐만 아니라 핵가족에서 핵개인으로의 변화 원인에는 사회적

요인도 있다. 최재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주변에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새끼를 낳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데 취업난을 비롯하여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평온한 주거 공간을 구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비용을 구하는 것이 부모의 도움 혹은 로또나 주식의 대박에 기대지 않고서는 넘볼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현상으로서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송길영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직장인에게 소속감과 명분은 사실 돈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부여입니다. 자신의 일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대의명분이 빈약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성장한다는 서사가 희미할 때, 숫자의 무한 비교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24] 이처럼 이제는 돈보다 소속감과 명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청년들은 대의명분이 명확하고 자신이 그 공동체에 공헌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한다.

[24] 송길영.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서울: 교보문고, 2023), 202.

B. 청년목회의 이해

1. 청년세대의 탈교회화

탈종교화 그리고 탈기독교화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된 이후 서구 기독교가 쇠퇴하고, 다양한 사상과 문화의 등장, 세속화의 확산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 되었다. 한국교회 역시 교회의 여러 윤리적인 문제,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과 삶의 물질적 풍요, 다양한 문화환경의 변화와 MZ세대의 등장 등에 급변하는 흐름에 한국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큰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25]의 증가와 젊은 청년들의 탈기독교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현장예배가 주춤하고 비대면 예배가 병행된 기간에 청년들의 교회 이탈은 가속화되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오던 교회를 청년이 되자 차츰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무종교인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교회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시대와 교회의 간극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그 괴리감이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시대에 도태되는 청년이 될 것인가, 교회를 떠날 것인가. 청년들이 머물러 있는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일지 모른다. ‘역동성’과 ‘미래지향성’은 청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2023 국민 종교 현황' 주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성인 4,751명과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25] 가나안 성도는 신앙은 있지만, 여러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진행한 설문 결과를 담았다. 그 결과, 2023년 만 19세 이상 종교인 비율은 37.1%, 무종교인 비율이 62.9%로 드러났다. 2017년 무종교인의 비율(53.4%)이 종교인(46.6%)을 처음 추월한 이후 격차가 심화됐다. 20·30대의 종교인 비율은 각각 16%, 19%로 드러났다. 직전조사(2017년) 대비 15%, 19% 감소한 값이다. 타 연령대의 경우 40대는 45%에서 30%로, 50대는 52%에서 40%로 줄었다. 60세 이상은 62%에서 59%로 비교적 감소폭이 좁지만 감소세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종교 별 인구 비율은 개신교 16.6%, 불교 12.4%, 가톨릭 7.8% 순으로 나타났다. 불교와 개신교는 201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신교는 2012년 22.5%와 비교했을 때 5.9% 하락했다.

20대 개신교인은 최근 10년 사이 10% 감소했다. 2012년 19%에서 2023년 9%로 줄었다. 30대의 경우 2012년 21%에서 2023년 11%로 감소했다. 한국교회 향후 개신교인 비율을 예측한 결과, 10년 뒤 개신교인의 비율은 1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의 연령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대에서 일반 국민 대비 개신교인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개신교인이 49%로 일반 국민(32%)보다 17% 높게 나타났다. 목데연은 이를 두고 교회가 한국 사회보다 더 고령화 돼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목데연은 "한국교회는 탈종교화와 개신교인의 감소, 가나안 성도 증가, 저연령층의 종교 무관심 현상에 더해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맞닥뜨리고 있다"며 "고령화 시대 노인목회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차세대 사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26]

최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출판한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또한

[26]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2023 국민 종교현황, 『넘버즈』, 196, .

비슷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종요인구 및 개신교인 비율을 조사했는데, 종교인구는 2004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인데, 2030세대의 종교인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특히 하락 폭이 높아 1998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인의 비율만 살펴보아도 2022년 기준 19-29세 11%, 30대 15%로 20대의 경우 5년 전 조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27]

이러한 청년들의 탈종교화 현상 중에 나타나는 또 한가지 눈여겨볼 트렌드가 있다. 바로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다. SBNR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는 말이다. 바로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개인 신앙을 유지하는, 이른바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 국내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현상인 SBNR은 제도적 종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들을 지칭한다. 한국의 '가나안'성도가 대표적이다.

SBNR이 확산되기 시작한 데에는 코로나19가 결정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예배가 불가능해지고, 청년들은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을 공식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되었지만, 온라인 예배의 현실화는 SBNR에게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것이고,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모든 대면 모임이 취소되고, 한국사회가 비대면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심화되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진원지로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으면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크리스천들은 사회적 분위기, 직장의 대응 방안, 정부의 정책 때문에

---

[27]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207.

교회에 가는 것이 위축되었고, 이것이 SBNR이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28]

이런 동향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서도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성인 4,7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나안 성도 비율은 19~29세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39세가 35%, 40~49세는 36%로 다소 높았다. 50~59세는 27%, 60~69세는 19%였으며 70세 이상이 17%로 가장 낮았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지난 연말 공개된 미국 설문조사기관 퓨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자신을 SBNR이라고 표현한 18~29세와 30~49세는 모두 24%로 나타났다. 50~64세는 22%, 65세 이상은 17%로 나타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SBNR과는 거리가 있었다.29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가나안 성도를 포함한 SBNR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기에 기성 교회에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하다"며 "신앙의 본질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교회가 SBNR의 다양한 영적 욕구에 주목해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해야 할 것"[30]이라고 조언했다.

2. 청년목회 구조의 변화

대한민국이 수축사회와 핵개인사회로 변화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의 정체, 혼인율 감소 등의 이유로 1인 가구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혼인연령과 미혼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미혼인 청년 세대(19~34세)는 783만

[28] 목회데이터연구소, 희망친구 기아대책. (2022), 『한국교회 트렌드 2023』, 65-69.
[29]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2023 한국인의 종교현황, 『넘버즈』, 196, .
[30] 신은정. "청년 '가나안 성도' 늘어…19~29 세 45% 최다" *국민일보*. 2024 년 1 월 23 일,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76

7천명이었다. 이 수치는 전체 청년인구의 81.5%로 5년 전 수치 75%보다 6.5%나 높아졌다. 이 수치는 2000년 54.5%에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31] 사회적으로 혼인율이 줄어들고, 초혼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젊은이들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혼인비용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통계청의 '2023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혼수 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33.7%에 달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혼부부가 주택과 혼수를 제외하고 결혼에 쓰는 비용은 3885만원이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예식장 1283만원, 예단 758만원, 신혼여행 725만원, 예물 673만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360만원, 이바지 86만원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상견례에 드는 비용이나 폐백, 한복과 양복 등을 추가할 경우 비용은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 같은 어려움은 교회 청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2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청년부가 지금은 3,40대를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다. 규모 있는 교회의 경우 청년부를 대학부와 청년부로 구분하는데, 과거 대학생 신분과 직장인 신분으로 구분하던 기준이 최근에는 취업난과 졸업을 미루는 대학 문화로 인해 점차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전까지 청년부에 출석하다가 결혼 후 장년부에 가입하던 과거 모습과 달리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장년부도 고령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990년만 해도 9% 수준에 머물렀던 1인 가구 비중은 그야말로 무서운 기세로 급증했다. 통계청의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는 총 561만 8,677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28.6%를 차지했다. 가구 비중으로 보면 27년 만에 무려 3배나 넘게

---

[31] 안태호. "30~34 살 청년 56.3% '미혼'…30 년 뒤 청년 인구 11% 급감" *한겨레*. 2023 년 11 월 27 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7986.html

[32] 뉴시스. "결혼식 비용만 5 천만원…스드메 가격 공개 효과 있을까" *동아일보*. 2024 년 3 월 17 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317/124005916/1

증가한 것이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에서는 2022년 기준 1인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34.5%로 750만 2천 가구였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청년 세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0-30대의 젊은 청년층의 비율은 전체 1인가구의 36.5%였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의 40%에 가까운 가구가 청년세대라는 것이다.[33]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교회는 청년부를 대학부 혹은 청년1부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혹은 20대 중반 정도까지의 나이로 구분 짓는다. 청년2부는 대체로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 이상의 청년이 속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의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의 미혼자들은 청년의 타이틀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집사가 되거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사례였다. 과거에는 30대 초 중반, 늦어도 후반에 많은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집사가 되고, 각 선교회로 배치되면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듯 30~40대 비혼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은 요즘 장년 그룹과 청년 그룹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청년 1인 가구를 고려한 교회 구조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단순히 결혼 이후를 장년, 결혼 전을 청년으로 구분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훌쩍 넓어진 청년의 범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청년의 정의, 그리고 청년의 스펙트럼이 변했다. 이제는 20대 대학생도 청년이지만, 40대 후반도 청년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청년에 대한 관점을 깨고 이제는 청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교인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스펙트럼이 넓어짐으로 청년목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새로운 대안을 한국교회는 제시할

[33] 통계청. (2023).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7-8.

준비가 되어야한다.

III. 레너드스윗의 EPIC 이론 이해

A. 레너드 스윗의 사상

레너드 스윗은 교회사를 전공한 역자학자이면서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요 복음 전도자이다. 그는 시대를 탁월하게 읽고 학문적 문화와 대중적 문화를 잇는 문화사역자이자 학술가이다. 미국 뉴저지주의 드루대학교의 '스탠리 존스' 전도학 석좌교수이자 조지폭스대학교의 명예객원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미래교회연구기구인 'Spirit Venture Ministries'의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미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혁신적인 목회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스윗은 '프리츠더스토리닷컴'(preachthestory.com)라는 웹 사이트를 통하여 수많은 설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교회사학자 중 한명인 스윗은 사회, 문화, 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혁명적 변화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분석과 처방을 통하여 교회미래학을 발전시켜왔다.[34] 스윗은 『소울 쓰나미』, 『아쿠아 처치』, 『소울 살사』,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등 70 여권의 저서와 200여 개의 논문, 1500여 개의 설교문을 출판했다.[35]

---

[34] Leonard Sweet, *Carpe Manana*, 김영래 역, 『미래 크리스천』 (서울: 좋은 씨앗, 2005), 9-10.

[35] SpiritVenture Ministries. "Leonard Sweet," 2022, https://leonardsweet.com/about/ .

B. EPIC 이론의 특징[36]

스윗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그는 그의 저서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Postmodern Pilgrims)에서 그는 현대는 본질적으로 끝났으며,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세상과 어떻게 접촉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21세기 목회의 대안을 제시한다. 스윗은 '이중 종소리(double ring)'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세계에 기독교 신앙을 자리매김하는 고대미래적 접근을 이름하고 발전시켰다. 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귀를 기울인다는 존 스토트(John Stott)의 '이중 청취(double listening)'이라는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37] 존 스토트는 "'이중 청취'는 동시에 두 목소리를 듣는 청취 능력, 즉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목소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말한다. 이 목소리들은 종종 배치된다. 그러나 두 목소리를 모두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38]

스윗은 성경을 믿는 교회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문화 속에서, 영혼 구원을 핵심으로 여기는 교회에 영혼 구원을 개인적으로 체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문화 속에서, 소비주의가 제일 종교가 된 문화 속에서, 세상의 유명인사들의 말이 예수님보다 더욱 권위 있는 문화 속에서, 성경이 세상을

---

[36] 레너드 스윗이 제시하는 교회론으로 체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관계(Connection)의 네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며, 그 첫 글자들을 따서 이름한 이론이다.

[37] Leonard Sweet, *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서울: 좋은씨앗, 2002), 17.

[38] Ibid., 17.

바라보는 시각을 더 이상 제공해주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의 메시지를 들어 올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성경이 생명의 책임을 전달하며 우리가 직면한 포스트모던 위기를 헤쳐 나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스윗은 십자가의 관점에서 오늘의 문화를 해석하고 기독교 전통에 비추어 새로운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중 청취' 과정을 통해 성경에 기초하고 문화에 상응하는 목회를 위한 'EPIC' 모델을 제시한다.[39]

여기서 EPIC 교회는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그리고 관계(Connection) 중심의 EPIC 교회를 말한다. 그는 이 EPIC 교회가 포스트모던문화와 상호 작용하며, 여전히 살아 있는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통과 개혁의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1. 경험적 교회(Experiential Church): 이해가 아닌 경험

이전의 시대, 즉 모던시대는 객관적인 지식이나 논리를 중요시했으나 포스트모던 시대는 그러한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직접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포스트모던을 사는 현대인들은 삶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삶을 경험함으로 답을 찾고 싶어한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상품에 의해서 운영되는 산업경제는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경제로 변화했다.

---

[39] Ibid., 22-25.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식경제에서 이제는 경험경제로 변환되었다는 것이 스윗의 주장이다.[40] 스윗은 포스트모던 경제의 화폐가 바로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고객들이 한 번 물건을 샀던 상점이나 한 번 음식을 주문했던 식당을 다시 찾아가게 하는 힘은 상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고 말한다. 현대인들은 삶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고 싶어한다. 특히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스윗은 현대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원하기보다는 경험으로 포장된 정보를 원한다고 말한다.[41]

북미 지역 외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영 학교 중 하나인 런던 경영학교(London Business School)의 학장이었던 존 쿠웰치(John A. Quelch)는 “우리는 교육하지 않는다. 변화를 추구한다. 런던 경영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대를 앞서가는 명문 경영 학교도 교육의 결과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다.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을 만들었는가를 본다는 것이다.[42] 스윗은 꿈, 감정, 그리고 극단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현상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동안 역사에 나타난 낭만주의의 표현양식은 경험적인 성향을 띠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의 거래가 세계 경제 구조의 기본 화폐가 되고, 작은 경험이 신비로운 체험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배가 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43]

자기계발 전문가들의 북미 네트워크 클레머 그룹(Clemmer Group)은 21세기를 가리켜 대중적인 ‘영적 각성’의 서막이고 했다. 다우존스 사가 보고한 10년간의 연구는 영적각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4,500만

---

[40] Ibid., 66.
[41] Ibid., 67.
[42] Ibid., 70.
[43] Ibid., 72.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존재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영적인 추구나 경험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윗은 이것이 영적 각성이 교회 밖의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44] 설상가상으로 2019년에 발병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1년에 발표한 종교현황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의 비율이 17%로 나타났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온 조사결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2014년의 21%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45] 2022년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의 교세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교인 수의 감소현상이 이전보다 두드러지고 있다.[46]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교회에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같은 말이었다. 영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종교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교회 밖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영적이고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교회가 그러한 신비를 가르쳐주고 그러한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여기고 실망한 사람들일 것이다.

실제로 영적인 삶은 죽은 다음 천국에 대한 이야기나, 신비한 종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재적인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맛보고, 향을 맡으며,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다.[47]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하는

---

[44] Ibid., 72-73.

[45]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갤럽리포트," 2021 년 4 월 7 일,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46] 송주열. "통계로 본 장로교단, 교인수 감소 브레이크가 없다" *노컷뉴스*. 2022 년 9 월 27 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824096

[47] Leonard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 『교회, 스타벅스에 가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실재적인 것(real thing) 즉,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회를 온다. 이제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다.

스윗은 이제 교회가 포스트모던인들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언어'란 십자가의 요한(John of the Cross)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쓰여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하고 새로운 의식을 느끼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열쇠이다. 교회의 예배가 사람들로 하여금 강렬하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느끼는 방법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다.[48]

총체적 경험은 포스트모던 예배가 추구하는 새로운 목표다. 새로운 세계의 설교가들은 설교를 쓰지 않는다. 그들은 총체적 경험을 창조해 낸다. 이러한 '쉐키나(Shekhinah, 신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경험들은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온 감각을 한데 묶어 진, 선, 미로 가득 찬 천상의 빛에 뒤덮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뿐이 임재하시는 찬란한 광채 속으로 이끈다.[49]

스윗은 고전 음악조차 포스트모던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멀티 미디어를 사용하고 다감각적인 효과를 내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관객들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느껴볼 수 있도록 '향기가 나는 카드'를 나눠주는 포틀랜드 오페라단의 예를 들었다. 그렇다면 교회도 향로를 흔드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할

다』 (서울: 좋은씨앗, 2002), 17.

[48]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78.

[49] Ibid., 78-79.

것이라고 그는 지적한다.[50]

2. 참여적 교회(Participatory Church): 대리가 아닌 참여

스윗이 EPIC이론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인식 방식은 '참여'이다. 앞서 말한 첫 번째 인식인 '경험'은 곧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참여의 시대(age of participation)' 그리고 '접근의 세대(age of access)'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현대의 '참여의 시대'는 일방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체계에서 유동적이고 상호적인 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평면적인 생활이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작용하는 기질 안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관찰하는 자로 참여자 만큼이나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세상과 함께 상호작용한다.[51]

가장 대표적인 예로, 현대사회는 인터넷을 비롯하여 사이버 세계 안에서의 경험과 소통 그리고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자 상거래 세계에서는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소매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상품에 얼마를 지불할 지를 결정한다. 스윗은 중세 시장이 사이버 공간에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표현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흥정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참여의 시대'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평 사회'라고 부른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윗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위사람'들로부터 단서를 얻으려 한다.[52] 요즘 TV에서 큰 인기를 끄는

---

[50] Ibid., 79.
[51] Ibid., 94.
[52] Ibid., 93.

프로그램들을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명 '리얼리티 쇼(Reality Show)'들이 많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더 이상 구경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고정적이고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며, 서로 함께 참여하며 교류하는 상호작용적 구조를 갖는다.[53] 이것이 초기에 교회가 간과했던 미디어의 '가치'라고 스윗은 주장한다. 멀티 미디어가 전달하는 진짜 내용은 바로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의 핵심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원하는 경험을 창조하게 해준다. 그래서 미디어가 발달해갈수록 현대사회는 참여적 문화가 발전했다고 스윗은 분석한다.[54]

참여 문화의 시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문화는 선택하는 문화이다. 스윗은 포스트모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보다 공격적인(심장 박동 보조기, 장기 이식, 보철기), 보다 돌출된(회상 회의, 온라인 교육), 보다 몰입하는(컴퓨터 게임, 가상운전, 가상현실)"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55] 그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무엇을 소유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56]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의 결혼,

---

[53] Ibid., 97.

[54] Ibid., 95.

[55] Ibid., 101.

[56] Ibid., 101-102.

장례, 의료, 음악, 경제, 교육, 정치, 책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57] 그래서 그는 포스트모던 문화는 선택하는 문화로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나 사회 전반에 걸쳐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은 교회에서도, 예배에 있어서도 더 이상 구경꾼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제는 '사고' 만큼 '느낌'을 중요시 하는 문화이다. 그래서 예배의 세 영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고, 깊게 호흡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스윗은 교회가 그동안 가졌던 '우리는 설교하고 당신들은 듣는다' 는 방식이 막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제 모든 회중은 참여하는 관찰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회중들은 성만찬 뿐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교회 활동에서도 '참여자'가 된다. 이제 '직업 목사'와 의자에 앉아 있는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신도 지도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직접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사만이 존재한다고 스윗은 과감하게 선언한다. 바로 모든 '참여자'가 전임 동역자인 것이다.[58]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을 끌어들이는 동방정교회와 신전통예배(neotraditional worship)의 힘과 신비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그것이 오순절주의의 유인력이나 신비함과 같다고 말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상호 작용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 '정면으로' 부딪히는 참여를 원하는데, 오순절교회는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춤, 이야기, 소리, 접촉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57] Ibid., 104-114.
[58] Ibid., 114-115.

움직이는 예배는 상호 작용하는 예식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를 참여로 변형시킨다.[59]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에 그 예배에 참여하길 원한다. 상호작용하는 예배 가운데 자신이 예배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적극적으로 느끼길 원한다. 예배에 참여하여하는 포스트모던인들은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스윗은 몸에 피어싱을 하는 것은 포스트모던 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몸으로 하는 의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아름다움과 젊음을 회복하려고하는 성형수술처럼 공격적인 형태로 신체 교정하는 현대인들과 달리 포스트모던 인들은 피어싱을 통해 자기 신체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한다. 예배 속에서 볼거리의 역할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스윗은 설명한다.[60]

어떤 체험을 옆에서 구경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자극이 되지만, 직접 참여할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계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세계에 참여하여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스윗은 스타벅스의 커피를 예로 들며 교회가 가져야할 참여적 교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커피의 경우는 그 커피잔을 만지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그 향기를 통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윗은 이렇게 진짜 경험은 우리의 숨결에 지우기 힘든 향기를 남긴다고 하면서 복음이 그와 같다고 말한다. 만들기 쉽고 무난하며, 무난한 맛에 설탕을 듬뿍 넣어서 냉동보관 가능한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복음이 아니라, 영원히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강력하고 향이 진한 경험을 주는 복음을 교회는

[59] Ibid., 115.
[60] Ibid., 116.

말하고 보여주어야 한다.[61] 이를 위해서 예배와 설교의 상호작용적 요소가 중요하며,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를 위해 고민해야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진짜 복음의 향기를 맡고, 그 세계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삶을 위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숙제이다.

3. 이미지 지향적, 상호작용적 교회(Image-driven, Interactive Church): 글이 아닌 이미지

문화는 은유, 상징, 이야기가 복잡한 그물처럼 짜여진 상징화된 시스템이다. 이전의 모던 시대는 언어에 기초한 문화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미지를 추구하고 창출하는 문화이다. 스윗은 교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그것이 교회가 제공하는 은유인지, 교회가 드러내는 상징인지, 교회가 전달하는 이야기인지를 돌아본다. 그는 포스트모던 교회가 예수님에 이야기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구속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포장한 '비유'가 아닌 현대적 교리와 율법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62] 그는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핵심에 놓으면서 지적인 신앙을 창조하려고 했다. 신비와 은유는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비논리적이라고 여기고 배제했다.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미디어에게 빼앗긴 교회는 이제 이야기와 은유가 영적 핵심에 놓인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다."[63]라고 분석한다. 이미지는 인간과 긴말한 관계를 맺으며 세계 공용어가 되었다. 특별히 상업세계에서 어디를 가도 이미지가 발견된다.

---

[61]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90.
[62]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5.
[63] Ibid., 133.

전 세계 많이 퍼져 있는 글로벌 기업 스타벅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스타벅스의 매장 분위기는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이미지는 전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다. 스타벅스는 어디를 가도 거의 모든 요소들에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독특한 이미지를 심어놓고 그것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 시킨다.[64]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 하나인 코카콜라도 어떠한 광고나 경쟁력 있는 가격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상표와 그 이미지로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는 이런 이미지와 은유로 기업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고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

벅민스터 풀러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도구를 주라고 말했다. 그런데 종교지도자가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은유 또는 이미지다.[65] 문화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는 그 문화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 개념의 은유와 연결된다. 개념은 전래된 성질로만 정의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상호 작용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다. 이미지 추구는 한 문화에 한정되는 특징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자체가 지니는 특별한 활동이다. 인간의 정신은 그렇게 은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은유는 실재를 창조하고 사고와 행동을 구성한다. 그래서 은유는 언어 그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은유는 장식 그 이상의 것이다. 은유는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며 추론의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원인 그 자체가 된다.

이미지와 은유는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 사람은 감성에 따라 반응한다. 그래서

---

[64]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53.
[65]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7.

은유를 사용하는 예배의 위력은 그만큼 크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사용하는 은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66] 스윗은 "은유를 바꾸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 은유를 바꾸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변화될 수 있다."[67] 고 말한다. 이미지와 은유를 만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고 변형시키는 일이다. 지도자가 자신의 비전과 꿈을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미래로 이끌어갈 '공통의 은유'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눌 때 사람들은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건전한 이미지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텍스트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 그리고 이제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회중들로 하여금 대중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 건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연결된 공동체적 교회(Connected Community): 개인이 아닌 공동체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인터넷의 상용화 이후 즐겨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연결(connected)'과 '공동체(community)'다. 실제로 이 두 단어는 '연결 공동체(connexity)'라는 신조어가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 공간'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세상을 정보망으로 연결시켜 새로운 유형의 '공동 공간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빈번하게

---

[66] Ibid., 140-141.
[67] Ibid., 134.

사용되고 널리 퍼진 것은 진실한 공동체가 없다는 생각과 그것을 찾으려는 열망을 반영한다. 사회학자 다니엘 얀켈로비치(Daniel Yankelovich)는 미국 문화를 40년 간 연구한 끝에 “사회 연구를 통해, 세상 어디에나 넘치는 온정과 신실한 믿음이 있음을 알아냈다. 미국인들은 영적으로 중요한 삶의 질적인 향상, 더 깊은 유대감, 공동체적인 삶에 굶주려 있다.” 라고 평가했다.[68]

공동체의 포스트모던적 의미는 지역보다는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은 이제 일종의 모임 장소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러가는 사교장인 것이다.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올리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하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인터넷은 이렇게 남녀노소와 세대를 불문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 스윗은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인터넷처럼 “어디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곳을 찾을 수 있겠는가?” [69]라고 질문한다. 그런 그의 대답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교회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스윗은 그것이 사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오랜 세월 종교에 대하여 논쟁해왔는데, 이제 그들은 종교를 지겨워하며 더 이상 종교가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확신한다. 제도화된 종교에 따르는 엄격한 규율이나 조건들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 그 경험은 하나님과

---

[68] Ibid., 163.
[69] Ibid., 165.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룩함과 삶의 변화를 맛보는 것이다. 사이버세계에서 사귄 친구들과의 관계는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자극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언급한 전자 기기를 완비한 우리의 집(Eletronic Cottage)이 전 세계로 연결되면 될수록 교회는 더욱 개인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지정한 공동체를 생성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70]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처럼 '나 자신(myself)'이란 단어는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복음서에서 개인으로서의 '나'는 '타인'이 없는 '나 자신'이 될 수 없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이웃과 도덕, 그리고 영적인 가치의 연결 구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한다. 스윗이 EPIC에서 말하는 C가 '공동체(community)'보다는 오히려 '관계성(connectedness)'을 의미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혼자 있을 때조차 '나'는 나 자신과 전적으로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이루어진 '우리'라는 세계적 혼합체에 연결되어 있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 내성적이고 수줍은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조차도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이런 관계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동물이나, 예식 등에서도 찾는다. 그러나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교회는 관계성을 구현하고 관계를 맺는 중대한 의식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다. 그리고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가 어디서부터 오며, 어떻게 그 관계를 맺는지를 포스트모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71]

시대의 공동체에 대한 갈망에 응답하기 위해 교회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의 목회를 향상시켜야 한다. 첫번째는 관계성에 대한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

---

[70] Ibid., 169.
[71] Ibid., 169-170.

이 관계성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핵심이다. 교회는 '관계'와 '관계성'의 개념을 포스트모던 상황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범위가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관계의 다양성이다. 관계에서 오는 힘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 교회가 포스트모던인들이 개인간의 관계, 창조물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다면, 모든 관계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72] 두 번째로는 교회는 분산되고 복합성을 가져야한다. 하나님께는 세상을 복합적으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 강도와 힘은 단순성이 아닌 복합성에서 나온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세계적인 초집중화와 지역적인 분산화라는 양면성을 띤다. 예배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예배는 전체로 통합되면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작고 개별적인 소그룹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소그룹들은 예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초집중화된 예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73] 세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이 목회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바로 공동체를 창조해내는 힘이다.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문제다. 우리를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서 경험을 조직화한다. 인간의 인지는 스토리텔링에 근거한다. 성경의 언어는 이야기다. 우리는 핵심에 닿기 위해서 많은 단어를 쓰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실상 복음의 이야기는 떡과 포도주처럼 이 땅에서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는 이미지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맛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보기를 원한다.[74] 마지막 네 번째는 봉사와 사회 개혁에 참여하는 예배를 만드는 것이다.

---

[72] Ibid., 172.
[73] Ibid., 174-176.
[74] Ibid., 177-179.

종교학자 휴스턴 스미스(Houston Smith)는 “종교의 핵심은 인격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바꾸는 데 있다”고 말한다. 예배(worship service)라는 말 자체가 뜻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경배’와 ‘봉사’라는 이중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75]

교회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에 맞게 연결과 연결성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한다. 스윗이 말한대로 연결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연결의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다. 연결 속의 풍성한 삶과 접촉 또는 네트워킹 속의 풍성한 삶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76] 교회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관계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

[75] Ibid., 179-180.

[76] Leonard Sweet, Aqua Church, 김영래 역,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서울: 좋은씨앗, 2004), 272-273.

IV. EPIC 이론을 적용한 청년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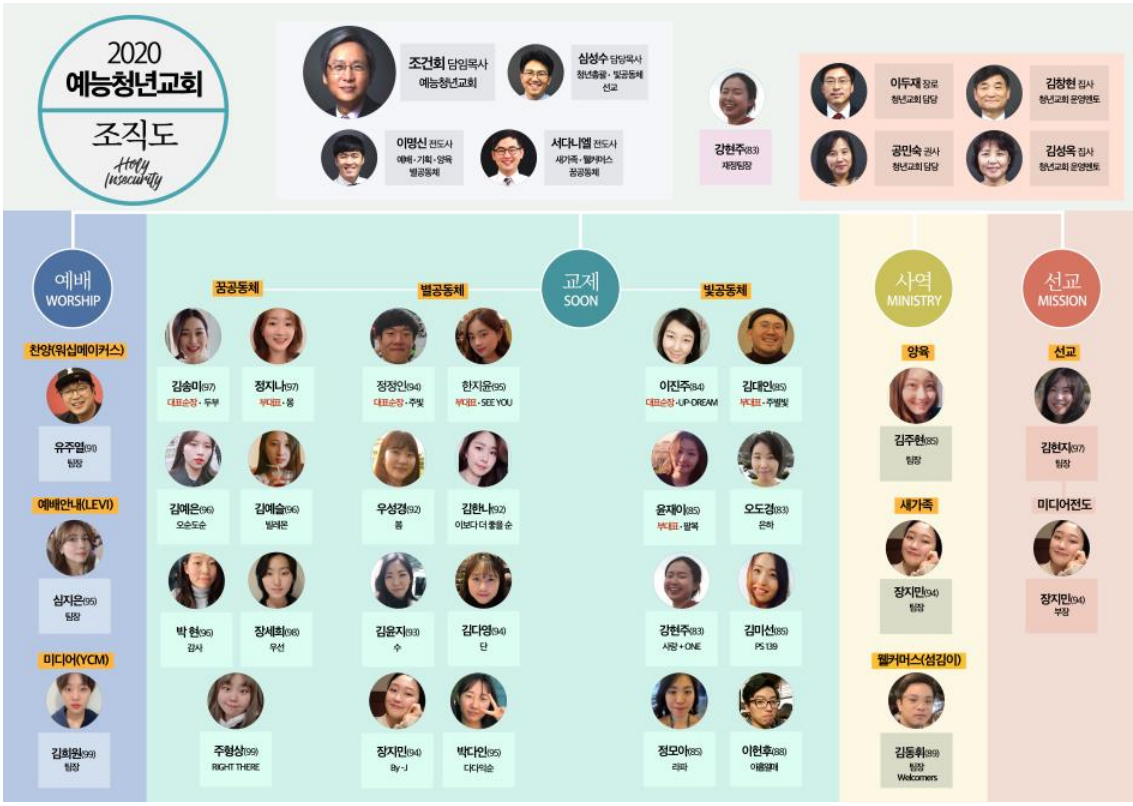
A. 예능청년교회의 목회와 사역

1. 예능청년교회의 배경과 환경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의 예능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마땅히 행할 것(대상 12:32)이 청년 세대를 살리는 일이라 판단했다. 10년 전 예능교회 당회는 청년공동체를 재정적으로 장년교회로부터 분리하여 청년교회라는 이름으로 청년공동체를 독립교회로 만들기로 결의했다. 수십년 전부터 청년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학교 산하의 부서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독립한 후 현재 예능교회는 예능 장년교회와 예능청년교회가 함께 공존하는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다(그림1). 예능교회라는 한 공간을 예능 장년교회와 예능 청년교회가 공유하고 있다.

(그림 1) 예능교회와 예능 장년교회

<표 1> 예능청년교회 조직도



2. 예능청년교회의 비전과 사역

예능청년교회는 구조적으로는 분리된 공동체이지만 예능장년교회와 목회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추후 장년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될 청년교회 성도들도 장년교회와 같은 목회적 방향성을 가져야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능청년교회 목회적 비전과 방향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예능청년교회는 예능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독립된 또 하나의 교회이다. 바로 청년교회가 예능교회 안에 있지만, 독립된 또 하나의 교회라는 정체성이다. 소속된 청년들이 하나의 하위부서에 소속된 구성원이 아니라 교회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둘째, 예능청년교회는 본 교회의 목회철학을 이어간다. 청년교회는 독립된 교회이지만 분리되거나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능교회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목회철학을 가지고 가는 교회이다. 예능청년교회는 예능장년교회의 목회철학을 이어가지만 그 철학을 이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청년들만의 건강한 거버넌스를 갖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간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능청년교회는 청년 세대에 맞게 믿음의 모험을 추구하는 교회이다. 청년 공동체의 핵심표어는 '믿음의 모험(Holy Insecurity)' 이다. 이 표어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 간 것처럼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갈수록 미래가 불투명하고, 진로가 불안정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에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예능청년교회이다.

B. EPIC 이론을 적용한 예능청년교회의 사례연구

1. 경험적 교회

a. 실재적 예배(Input)

청년들은 이제 단순히 듣는 것에는 질려 있고 식상해 한다. 예배도, 찬양도, 말씀도 똑같은 것을 듣는 것을 진부하게 여긴다. 오히려 청년들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듣고 지식을 쌓는 신앙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는 실재적인 신앙을 원한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청년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청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지고 느끼고 알게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한다.

주일청년예배: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청년예배는 형식은 굉장히 간결하게 짜여져 있지만 내용은 아주 역동적이다. 기존의 전통적 형식들은 과감하게 버리되, 꼭 필요한 형식과 요소들은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예배가 기획되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잡하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으면서 예배의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고, 다양한 연구와 노력들이 있었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청년들의 영적인 체험을 돕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청년사역 초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에너지와 재정을 투자했다.

탁월한 찬양 전문 인도자를 청빙하여 전문적으로 팀을 지도하도록 했다. 그렇게 예배찬양팀이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성장하면서 예배 순서를 간소화 하고 찬양의 비율을 전체 예배의 40% 이상 차지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예능청년교회 찬양팀이 '워십메이커스' 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예능청년교회와는별도의 찬양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로 했다. 음악을 전공한 청년들이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도 전공분야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 청년교회에서 제작비을 마련하여 자작곡 앨범을 발매하였다. 작곡, 프로듀싱, 디자인 등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청년 찬양팀은 두 장의 앨범과 다양한 싱글곡들을 발매할 수 있었다. 실제로 예능청년교회의 고백을 담아 작사작곡한 찬양곡들을 실제로 예배 때 함께 배우고 찬양함으로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림 3) 예능청년교회 찬양팀 1집 앨범

(그림 4) 예능청년교회 찬양팀 2집 앨범

주중예배 메타노이아(Metanoia) 워십

메타노이아 워십은 주중 예배의 이름으로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드려진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찬양과 기도에 집중 할 수 있는 예배를 기획했다. 메타노이아 주중 예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겨울 중 1-2월과 여름 중 7-8월은 타문화권 선교와 수련회에 집중하기 위하여 주중예배는 3-6월과 9-12월에 총 10주차 내외로 진행된다. 메타노이아 워십은 주일 예배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설교를 영적 전쟁이나 죄와 회개, 성령에 관한 주제로 깊이 있게 다룬다. 예배 순서를 더 간결하게 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했다. 메타노이아 예배는 찬양 30분, 말씀 30분, 기도 30분이상으로 구성했다. 말씀 후 기도시간은 통성기도와 함께 침묵기도 시간도 두어 균형을 맞추었다. 특별히 청년들이 기도할 때는 목회자들이 예배에 참여한 청년들을 안수 해주거나 옆에서 함께 기도해준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주일 예배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예배를 구성하여 개인 기도시간을 길게 확보했고 주일 예배에 비해 적은 인원이 참여하여 교역자와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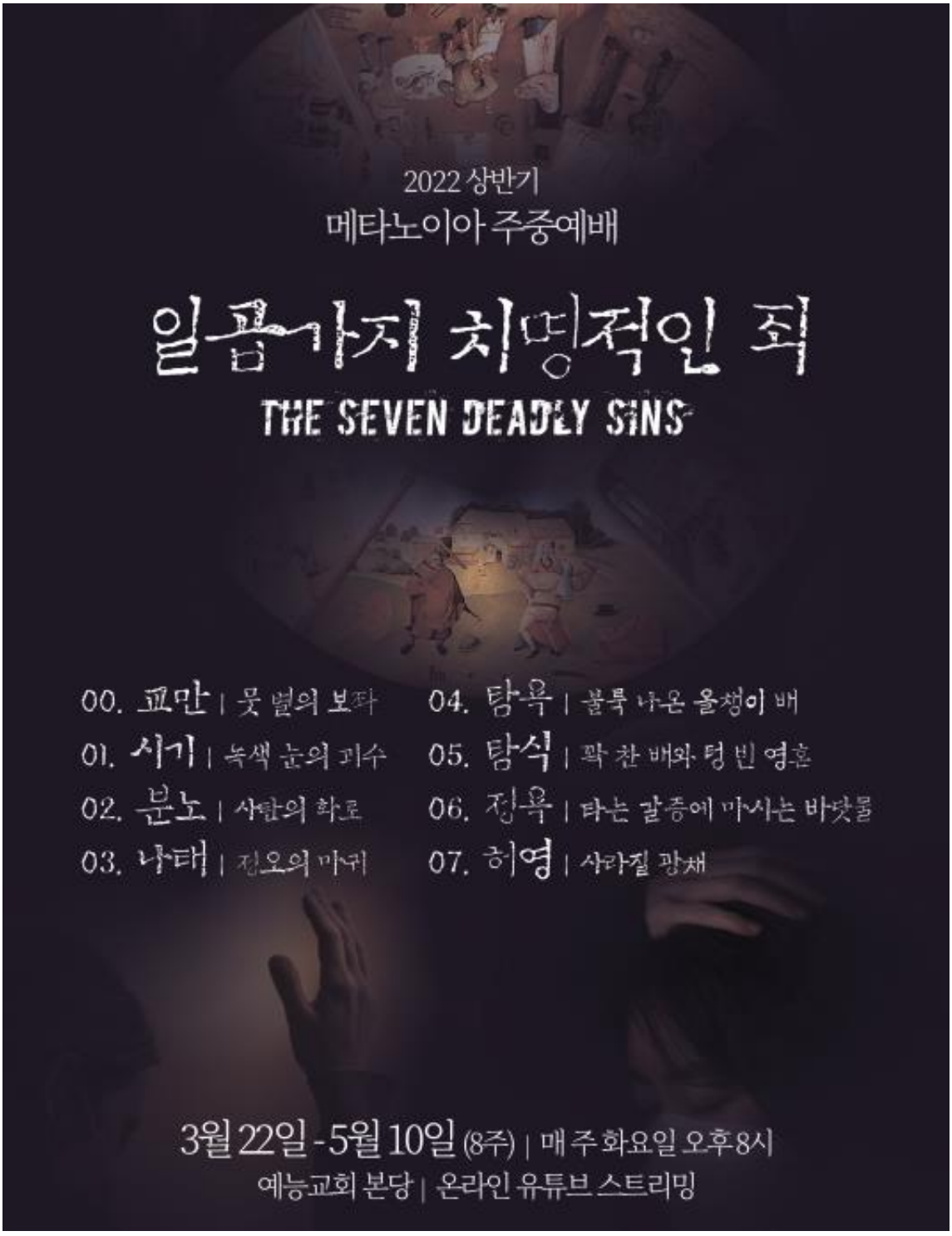
(그림 5) 메타노이아 워십 중 기도 모습

(그림 6) 메타노이아 워십 중 기도 모습

(표 2) 메타노이아 워십 큐시트

2023-2 메타노이아 2주차(0926) 큐시트

시간		순서 및 내용	담당자	조명	AUX3 (전광판)	AUX1 PGM	DSK	자막기	비고
7:50	10'	BGM	방송실	60	CG Fill	5번 CAM (Wide)	ON	인트로	# 7:58에 녹화 시작
8:00	25'	경배와 찬양 위대하신 주 새 힘 얻으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명신 전도사				OFF	경배와 찬양	찬양 후 합심기도 시 DSK ON
8:25	1'	합심기도	이명신 전도사				ON	없음 (빼기)	찬양이 끝나면 백그라운드 배경만 남기기
8:26	1'	말씀봉독	심성수 목사			5번 CAM (Close)	ON	말씀 봉독	
8:27	30'	설교 적당히 해서 안될 때가 있습니다	심성수 목사	80			OFF / ON	설교	* 설교 시작 시 F2로 본문만 빼고 시작 * 주일예배와 동일(설교자 리모컨 사용) * DSK OFF 상태에서 자막 읽을 때 ON
8:57	10'	결단찬양 & 기도 01 세상의 유혹 시험이	심성수 목사	60		2번 CAM / 5번 CAM	OFF	결단 찬양	* 찬양 때는 1번 CAM(전체화면) * 기도지 인도 시 5번 CAM(설교자 클로즈) 첫 기도 후 이명신 전도사가 기도 인도
9:07	10'	결단기도 02	이명신 전도사			2번 CAM / 5번 CAM		없음 (빼기)	* 기도 멘트 때는 5번 CAM(설교자 클로즈) * 통성기도 시 1번 CAM(전체화면)
9:17	4'	결단찬양 02 & 기도 03 주께서 다스리네	이명신 전도사			2번 CAM / 5번 CAM		결단 찬양	* 찬양 때는 1번 CAM(전체화면) * 설교자 멘트 때는 5번 CAM(설교자 클로즈)
9:21	3'	결단기도 04	이명신 전도사			2번 CAM / 5번 CAM			* 기도 멘트 때는 5번 CAM(설교자 클로즈) * 통성기도 시 1번 CAM(전체화면)
9:24	3'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이명신 전도사			2번 CAM / 5번 CAM		없음 (빼기)	찬양 후, 짧게 마침기도
9:27	1'	축복의 기도	심성수 목사	60		2번 CAM / 5번 CAM		축복 찬양	찬양 혹은 합심기도 마치면 축복의 기도로
9:28	2'	복음선포문 낭독	심성수 목사			5번 CAM	ON	복음 선포문	* 선포문 낭독 전까지는 OFF 낭독 시작할 때 ON으로
9:30	1'	축복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심성수 목사				OFF	없음 (빼기)	찬양 마침과 동시에 예배 마침 멘트
9:31	-	예배 마침	방송실				ON	아웃트로	* 아웃트로(인트로) 화면 덮기 BGM ON / 스트리밍 종료



(그림 8) 2022년 상반기 메타노이아 워십 포스터

(그림 9) 2021년 상반기 메타노이아 워십 포스터

절기 예배:

청년들 사이에 잊혀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교회력에 따른 절기예배이다. 많은 경우에 절기예배는 전통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력과 절기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예능청년교회는 청년들이 절기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절기예배를 매년 기획해서 준비한다.

예를 들면, 사순절 절기가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에 청년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사순절 기간을 의미있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재의 수요일 예배를 드린다. 기존예배와는 다르게 예전 중심의 예배를 기획하기도 한다. 2주 전부터 설교를 통해 사순절의 의미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에 의미를 충분히 나누고 광고 시간에 재의 수요일 예배를 소개하면서 청년들의 관심을 모은다. 또한 교역자와 청년 들이 함께 기획을 하고 무대 및 공간 디자인을 함께 한다. 또한 전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기도문을 낭독하고 음악 전공생들이나 무용 전공생들이 예배 음악 또는 안무를 담당해서 예배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말씀 후에는 성찬예식과 재의 예식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직접적인 체험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기획된 예배는 절기 때마다 청년들이 예배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도와준다.

(표 3) 재의수요일 예배 큐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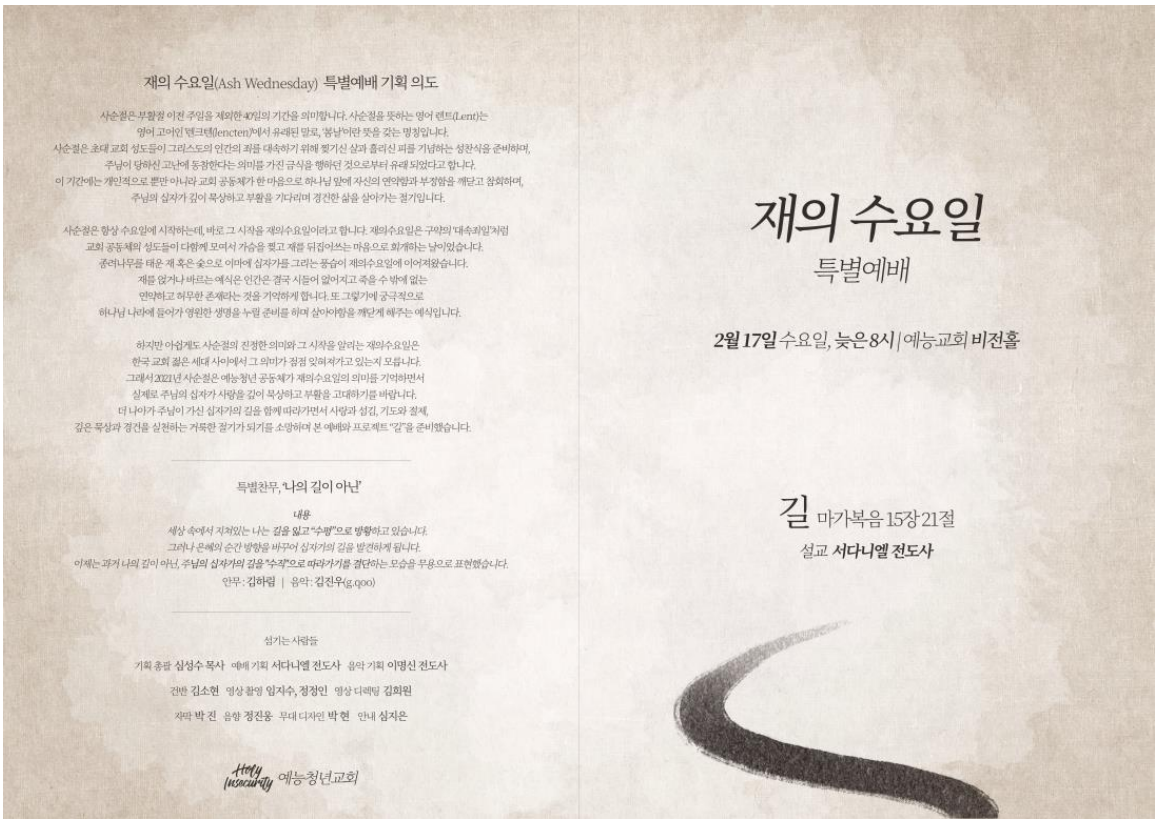
<재의 수요일 예배 큐시트>

시간	순서	내용	담당자
7:30	예배 준비	† 배경음악 J.S. Bach: Mass In B Minor, BWV 232: 14. Agnus Dei과 함께 침묵기도를 알리는 안내화면 준비 † 예배 준비찬양 전까지 조용한 배경음악을 재생	
찬 송 과 참 회 의 시 간			
8:00(1')	예배로의 부름	"12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2:12-13)**	서다니엘 전도사
8:01(2)	응답송	"주님을 찬양하라"(Laudate omnes gentes)	이명신 전도사
8:03(1)	기 원	전능의 하나님,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향한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오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참회하며 돌아갈 때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싸매어주시고 받아주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다니엘 전도사
8:04(3)	찬 송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찬송가 149)	이명신 전도사
8:05(3)	공동 기도	시편 51편 연도형식으로 낭독 후 침묵기도	서다니엘 전도사
8:08(1)	침묵 기도	인도자: 다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서다니엘 전도사
8:09(1)	사죄의 확인	**구약: 시편 103:8-14** 8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서다니엘 전도사
8:10(3)	찬 송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명신 전도사
말 씀 의 시 간			
8:13(2)	성경봉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5:21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인도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중:** 아멘	서다니엘 전도사
8:15(5)	특별찬양	- 제목: 나의 길이 아닌 -내용 : 길을 잃은 나…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안무: 김하림	김하림 청년

		-음악 : 김진우(g.qoo)	
8:20(10)	말씀 선포	"길"	서다니엘 전도사
8:30(3)	결단기도	침묵 가운데 말씀에 잇대어 기도	이명신 전도사
8:33(2)	결단찬송	엎드려 경배해(Mercy) 1절	서다니엘 전도사
성 찬 예 식			
8:35(3)	성찬찬송	엎드려 경배해(Mercy) 2절	이명신 전도사
8:38(2)	권면의 말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성찬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사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그분을 기억함으로 죄를 이기게 하고 고난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배예식서』, 58)**	심성수 목사
8:40(2)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23-29**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심성수 목사
8:42(1)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성부, 성자, 성령님, 인격적이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특별히 내 마음 속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 속에** **선명하게 새기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멘**	심성수 목사
8:43(8)	성찬 참여: 떡	**1. 떡**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찢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라. 이것을 행할 때 마다 나를 기억하라."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도 먹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충분히 기도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떡을 들겠습니다. 떡을**	심성수 목사

		드신 후에는 찬양이 멈출 때 까지 기도합니다. **집례자와 성찬위원들이 먼저 떡을 받고 회중이 떡을 받는다.**	
	성찬 참여: 잔	**2. 잔**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 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 안에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하시고, 심령의 잔이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충분히 기도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떡을 들겠습니다. 떡을 드신 후에는 찬양이 멈출 때 까지 기도합니다.** **집례자와 성찬위원들이 먼저 떡을 받고 회중이 떡을 받는다.**	
8:53(2)	찬송	엎드려 경배해(Mercy) 2절 +Bridge	
재 의 예 식			
8:55(2)	사순절 초청의 말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40일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재로 우리의 이마에 표하는 초대 교회의 예식으로부터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재는 먼지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 참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의 예식에 초대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깊은 성찰과 참회, 기도와 금식, 사랑의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나를 내려놓음으로 거룩한 사순절에 참여합니다.	심성수 목사
8:57(1)	재에 대한 기도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이 재로 하여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함과 참회의 표지로 삼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성수 목사
8:58(5)	재를 바름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함께 주님의 손을 대신하고 입을 대신하여 내 이마에 십자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후에 결단의 기도하도록 초대)**	심성수 목사
9:03(2)		엎드려 경배해(Mercy) 후렴 + Bridge	이명신 전도사
파 송 의 시 간			
9:05(1)	평화의 인사	머리에 재를 쓰신 청년 여러분, 이제는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재를 뒤집어쓰고 이 사순절 여정을 다르게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있지만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심성수 목사

		인도자: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9:06(1)	파송의 말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반성과 참회, 말씀과 묵상, 섬김과 사랑, 기도와 금식을 하며 거룩한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심성수 목사
9:07(1)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경건된 마음으로 사순절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순절의 묵상여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심성수 목사
9:08	침묵 / 개인기도	침묵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	이명신 전도사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특별예배 기획 의도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Lent)는 영어 고어인 텡크텐(lencten)에서 유래된 말로, '봄날'이란 뜻을 갖는 명칭입니다.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깨닫고 참회하며, 주님의 십자가 길이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하는데, 바로 그 시작을 재의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재의수요일은 구약의 '대속죄일'처럼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함께 모여서 가슴을 찢고 재를 뒤집어쓰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태운 재 혹은 숯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이 재의수요일에 이어져왔습니다.
재를 얹거나 바르는 예식은 인간은 결국 시들어 없어지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그렇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준비를 하며 살아야함을 깨닫게 해주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와 그 시작을 알리는 재의수요일은 한국 교회 젊은 세대 사이에서 그 의미가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1년 사순절은 예능청년 공동체가 재의수요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을 고대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사랑과 섬김, 기도와 절제, 깊은 묵상과 경건을 실천하는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본 예배와 프로젝트 "길"을 준비했습니다.

특별찬무, '나의 길이 아닌'

내용
세상 속에서 지쳐있는 나는 길을 잃고 "수평"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손간 방향을 바꾸어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수직"으로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무용으로 표현했습니다.
안무: 김하림 | 음악: 김진우(g.goo)

섬기는 사람들

기획 총괄 심성수 목사 예배 기획 서다니엘 전도사 음악 기획 이명신 전도사
건반 김소현 영상 촬영 임지수, 정정인 영상 디렉팅 김희원
작곡 박 진 음향 정진웅 무대 디자인 박 현 안내 심지은

Holy Insecurity 예능청년교회

재의 수요일
특별예배

2월 17일 수요일, 늦은 8시 | 예능교회 비전홀

길 마가복음 15장 21절
설교 서다니엘 전도사

(그림 10) 재의수요일 예배 순서지

(그림 11) 재의수요일 성찬예식과 재의의식

어버이 주일에는 ‘기도로 꽃피운 카네이션’이란 타이틀로 부모님과 청년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예배를 기획했다. 기도로 꽃 피운 카네이션 이라는 타이틀 답게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기도카드를 작성하여 한 달 전부터 기도하도록 했고 특별히 신앙이 없는 청년들은 부모님께 편지를 작성하여 어버이 주일 예배에 초대했다. 평소에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청년의 부모님들께 교역자들이 사전에 연락을 드려 인터뷰를 요청했고 부모님이 계신 직장과 가정으로 찾아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인터뷰 영상을 촬영을 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 편집하여 어버이 주일 청년 예배 중에 송출했다. 또한 청년들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도 함께 영상으로 담아냈다. 예배 당일 부모님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부모님들과 청년들의 영상이 참여한 부모님과 인터뷰 당사자에 해당하는 청년들 뿐 아니라 바라보는 다른 모든 청년들에게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그림 12) 예능청년교회 어버이주일 예배

(그림 13) 기도로 꽃 피운 카네이션 홍보 포스터

(그림 14) 청년 구성원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영상편지

b. 실천적 사역(Output)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인풋(input)이 있으면 당연히 아웃풋(output)이 있다.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실천이 있다. 예능청년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청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주신 말씀과 비전을 실천하는 사역들을 통하여 청년들은 삶 속에서 실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해외 아웃리치 사역:

예능청년교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브룬디, 일본, 크로아티아, 필리핀 총 6개국 해외 아웃리치 사역을 진행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이벤트성 단기선교가 많이 이루어졌다. 몇 년에 한 번 연결된 선교지에 가서 물질과 물품으로 후원하고 돌아오는 식의 선교말이다. 예능청년교회는 일회성으로 선교지 이곳저곳을 경험삼아 가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청년들이 선교사역을 함께할 수 있는 선교지들을 선정해서 그 곳을 매년 찾아가고 있다. 예능청년교회는 선교지에 가서 신학교 수련회, 어린이 캠프, 의료봉사, 문화공연, 예배 사역 등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돕고 특별히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고 교제하였다. 모든 선교사역은 청년들이 직접 현지 선교사, 목회자들과 소통하며 직접 준비한다. 예배, 워십, 전도, 재정 등 사역을 나누어서 청년들이 직접 모든 것을 함께 준비하면서 자긍심과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매년 같은 선교지를 찾아감으로 청년들이 선교지의 변화과정들과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선교지를 다녀온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선교지의

소식을 접하고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시키지 않아도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품고 선교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경험의 힘이고 청년들이 추구하는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림 15) 인도네시아 타문화선교

(그림 16) 크로아티아 타문화선교

국내 아웃리치 사역:

예능청년교회는 '거룩한 낭비' 라는 타이틀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4개 지역을 총 8회에 걸쳐 진행했다. 농어촌 지역 교회와 연계하여 어린이 캠프, 의료봉사, 농활, 축호전도 등 현지 목회자의 사역을 도왔다. 해외 아웃리치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이 요구하는 사역,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하는 사역들을 미리 조사하여 청년들이 그에 맞게 사역을 준비한다. 어린이들이 있지만, 성경학교나 영어교육이 어려운 지역에는 성경학교 프로그램과 영어캠프를 준비하여 그 지역사회의 모든 학생들을 초청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 농사하는 지역에는 청년들이 직접 논밭일에 육체적으로 동참하고 환경미화가 필요한 마을들에는 청년들이 청소하고 벽화도 그리며 마을을 꾸미는 사역에 동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선교지의 목회자와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내 아웃리치도 3-4년동안 같은 농어촌 지역을 방문함으로 지역교회와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맺는다.

(표 4) 예능청년교회 여름하기선교 기획안 예시

2023 보령 여름 하기선교 기획안

주제: 거룩한 낭비(Holy Waste)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9-10)

일시: 7월 30일(주일) 오후 5시 30분(본대 출발) **-8월 3일(목) 4박 5일 : 청년교회// - 8월 2일(수) 3박 4일 : 4교구**
지교회
신덕교회(담임목사 박종윤 : 충남 보령시 천북면 덕머리길 130)
천북교회(담임목사 손두진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8)
신동리교회(담임목사 오필승 :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357번길 148-64)
목표인원: **50명(청년만)**

회비:**청년 1인 9만원**

#01. 조직

교역자
청년교회 : 심성수 목사, 이명신 전도사, 이승현 목사, 박종일 전도사
4교구: 박이삭 목사, 임진수 목사

담당교회	담임목사	담당교역자	팀장	교회주소
본부	-	심성수 목사 이명신 전도사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8
천북교회	손두진 목사 010-9629-8291	박이삭 목사	이지현 팀장 정혜수 부팀장	
성경학교		임진수 목사		
신덕교회	박종윤 목사 010-2483-9677	박종일 전도사	정지나 팀장 유수현 부팀장	충남 보령시 천북면 덕머리길 130
신동리교회	오필승 목사 010-5519-0129	이승현 목사	손소빈 팀장 김선교 부팀장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357번길 148-64

#02. 사역일정

	7월 30일 SUN	7월 31일 MON	8월 1일 TUE	8월 2일 WED	8월 3일 THU
오전	-	지교회별 사역	지교회별 사역	지교회별 사역	데이오프
오후	**전체 출발 (청년 + 4교구)**	지교회별 사역	지교회별 사역	지교회별 사역 **4교구팀 서울 복귀**	**지교회별 사역 마침 교회 복귀**
저녁	**지교회별로 도착 숙소 배정**	기도회 및 평가회 각 지교회별	기도회 및 평가회 각 지교회별	청년팀 전체 집회 천북교회	예능교회 도착

1) 전체일정

7월 30일(주일) - 8월 3일(목) / 4박 5일 *** 4교구 3박 4일**

전체일정은 선교팀 전체가 진행하고 움직여야 하는 일정이며, 각 지교회는 사역일정을 따로 구성하여 각 일정대로 진행

2) 출발편

7월 30일(주일)청년예배 후 5시 30분

약 2시간 10-20분 소요 예상

저녁식사: 김밥 혹은 토스트 준비(출발 전 혹은 차량에서 식사)

차량: 인원에 맞춰 필요 차량 준비 필요 **1안**(50명 이상) : 45인승 1대 / 스타리아 1대 / 스타렉스 2대(1대는 렌트) **2안**(50명 이하) : 스타리아 1대 / 스타렉스 4대(3대는 렌트) *** 4교구 차량 및 출발 일정 조율 필요**

간단한 사역 준비 후 취침

3) 도착편(청년교회)

7월 30일(목)오후 3시 예상(추후 조율 필요)

약 2시간 30분 소요 예상

당일은 사역 없이 지교회별로 데이오프 진행 + 점심식사

데이오프 3시 이전까지 마치고 교회별로 복귀 준비 마침

4) 공통사역

전체집회: 수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 / 천북교회(본부)

5) 경건회 및 평가회

모든 지교회는**아침식사 전 경건회를 진행**(with 큐티인)

모든 지교회는 **사역을 모두 마친 후 평가회 및 기도회를 진행**

수요일 저녁은 **지교회팀 모두 본부교회로 모여 전체 집회를 진행**

6) 지교회별 일정

월-수 오전/ 오후는 지교회별 사역 일정을 소화

지교회 팀장 및 담당교역자가 논의하여 상황에 맞게 사역을 준비

타임테이블은 지교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진행**

목요일 오전 및 오후는 팀별 휴식 및 지교회 목사님과의 교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우도록 함 : DAY OFF

각 교회별 바베큐 타임: 화요일 저녁

담당교회	요청사역 내용
천북교회	농촌봉사(고추밭), 도배(한가정 정도), 마을 전도, 여름성경학교 등

신덕교회	농촌봉사, 벽화, 마을전도 등
신동리교회	옥수수 따기, 마을잔치, 벽화, 저수지 및 마을회관 청소, 네일아트 및 마사지 등

) 여름성경학교

장소: 천북교회

대상: 천북면 아이들(약 4명), 다른 지교회 아이들(취합 필요)과 4교구 자녀들

담당: 천북교회 사역팀 내 성경학교 팀을 조직 / 청년들과 일부 4교구 교사 서포트 필요

담당교역자: 4교구 교역자

#03. 식사 & 주방팀

사역 기간 동안 식사를 위한 주방팀이 반드시 필요 **가능한 본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도움이 필요 & 섭외**

본부교회에서 조리 후 각 지교회 수송팀이 식사를 배급 받음

본부교회(천북교회) 디테일한 주방 사진 및 조리도구들의 정보가 필요

수송 및 배식을 위한 용기들 구입 필요

조리는 본부에서, 설거지는 반드시 지교회에서 식사 후 진행하여 본부로 가져오도록 함

전체 배식 일정 6식(월요일 점심, 저녁 / 화요일 점심, 저녁 / 수요일 점심, 저녁)

아침식사는 각 지교회별로 간단하게(토스트, 빵 등) // **4교구 아침식사 자체 진행**

#04. 차량 및 수송

출발편과 도착편을 위한 45인승 대절 필요(50명 이상 참가시)

각 지교회별 이동은 예능교회 승합차(스타리아/스타렉스)와 지교회 승합차를 이용할 것

지교회 승합차 운행 가능 여부 체크 필요(지교회 팀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이동시 차량이 2대 이상 필요)

1) 수송팀

각 지교회에 승합차 **운행이 가능한 팀원이 필요**(담당교역자와 함께 차량 운행)

수송팀은 출발-도착시 담당교역자와 함께 차량 운행

사역기간동안 본부교회에서 **식사 배급을 위한 운행(* 반드시 스케쥴을 확인하여 배식에 차질이 없도록 엄수)**

이외에 지교회 사역 및 이동을 위한 운행 진행

. 예산기획

1) 지출예산 가안

항목	내용	예산	비고
차량	45인승	1,500,000	출발-도착 왕복
	스타렉스 렌트	450,000	
	주유 및 통행료(승합 3대)	600,000	
소계		**2,550,000**	
식사	**출발 저녁** 청년 : 5,000원 * 55명 = 275,000 **4교구 : 5,000원 * 40명 = 200,000**	475,000	
	사역기간(월-수) 식사(4교구 포함) 청년 : 6,000원 * 55명 * 6식 =	3,180,000	

	1,980,000 4교구 : 6,000원 * 40명 * 5식 = 1,200,000		
	사역기간(월-수) 간식(4교구 포함) 청년 : 3,000원 * 55명 * 3일 = 495,000 4교구 : 3,000원 * 40명 * 3일 = 360,000	855,000	
	마지막날 점심 12,000원 * 60명	720,000	지교회별 식사 // **4교구 미포함**
	아침식사 4일 * 3,000원 * 55명 // 청년	660,000	**4교구 아침식사는 자체 진행**
소계		**5,890,000**	
사역	**각 지교회별 50만원**	1,500,000	
	성경학교	500,000	
소계		**2,000,000**	
운영	답사 : 2회	400,000	
	단체티 청년 : 5,000원 * 55명 = 275,000 4교구 : 5,000원 * 40명 = 200,000	475,000	
	여행자보험 청년 : 4,000원 * 55명 = 220,000 4교구 : 4,000원 * 40명 = 160,000	380,000	
	핸드북제작 청년 : 3,500원 * 55명 = 192,500 4교구 : 3,500원 * 40명 = 140,000	332,500	
	주방팀 및 봉사자 선물 및 부대비용	500,000	주방봉사자 5명
	지교회별 감사헌금(각 20만원)	600,000	
	본부 운영비	300,000	본부 준비 및 운영 회의, 차량지원 등
	선교학교	400,000	7월 매주 화요일 전체 모임
	예비비	500,000	
소계		**3,887,500**	
합계		**14,327,500**	

** 전체적으로 2019년 영월 사역 기준으로 예산 비용을 책정하였음, 추가적으로 증액될 수 있음

2) 수입예산 가안

항목	내용	예산	비고
하기선교	청년교회 배정 예산	4,000,000	
회비	청년 50명 * 9만원	4,500,000	
합계		**8,500,000**	

** 조율사항

4교구 부담 예산 1) 사역제외(식사, 간식, 단체티, 핸드북, 보험 등) **총 2,260,000원** 2) **여행자보험을 자체로 진행**할 시 **총액 2,100,000원**

여기에 **추가 사역비용 총 200만원 중 4교구 부담금액을 어느정도로 할지 정리 필요.**

지역사회 원데이 아웃리치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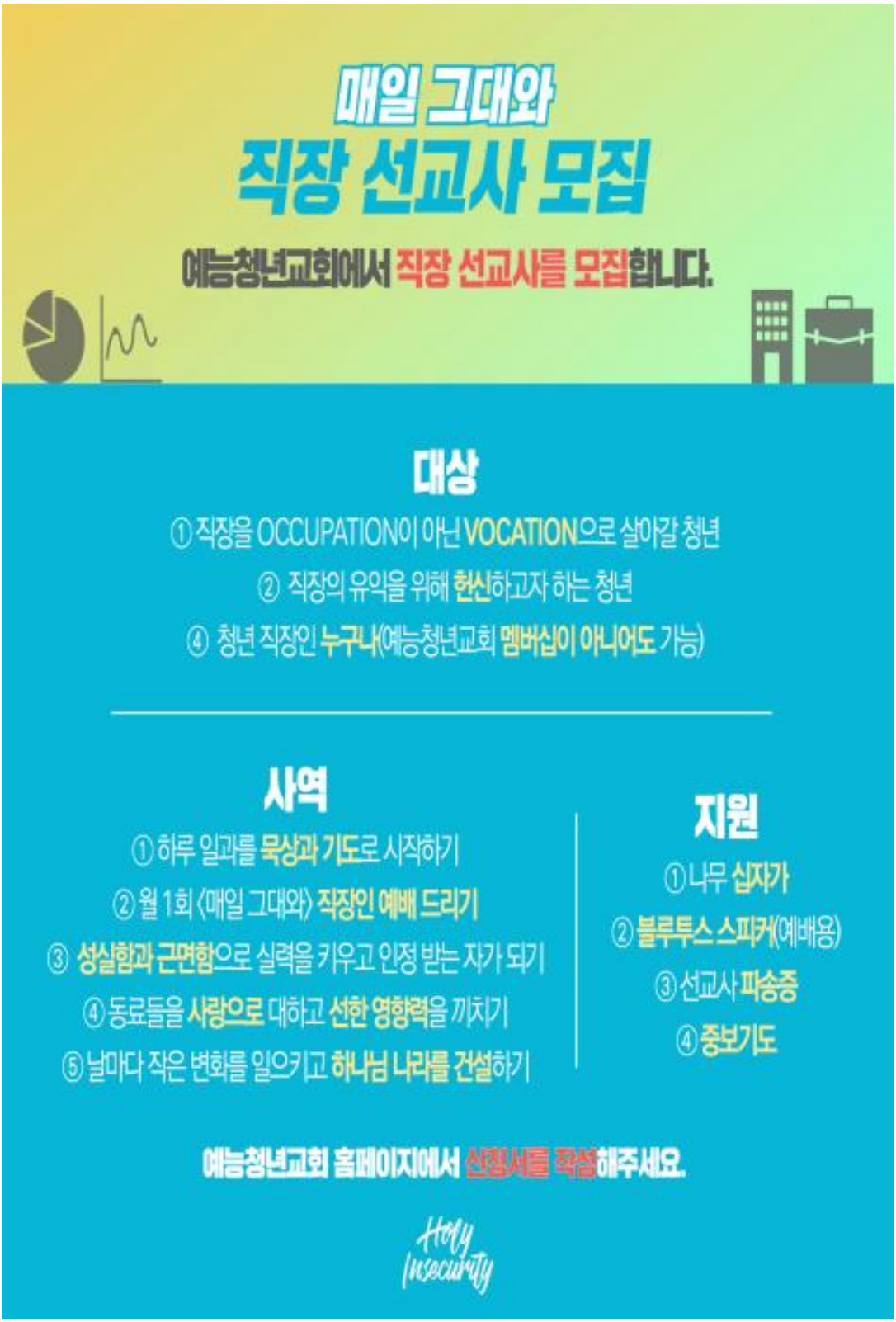
해외와 국내 농어촌지역의 선교와 섬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능청년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인 평창동을 섬기는 사역을 빼놓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능청년교회를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세우셨고, 이 곳에서 동네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셨다. 예능청년교회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특별히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전도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실천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2020년 3월 17일을 시작으로 예능청년교회는 '호프 딜리버리(HOPE DELIVERY)'라는 타이틀 아래 평창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교회가 위치한 평창동 지역에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원데이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 40가정을 찾아 사랑과 희망을 나눴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2-3회씩 총 9회에 걸쳐 원데이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또는 국내 아웃리치는 몇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직장인 청년들이 많았는데 원데이 아웃리치는 더 많은 청년들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에 청년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가장 가까이 있음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주변을 더욱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웃사랑의 마음을 더 품게 되었다.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림 17) 평창동 주민센터와 협력한 원데이 아웃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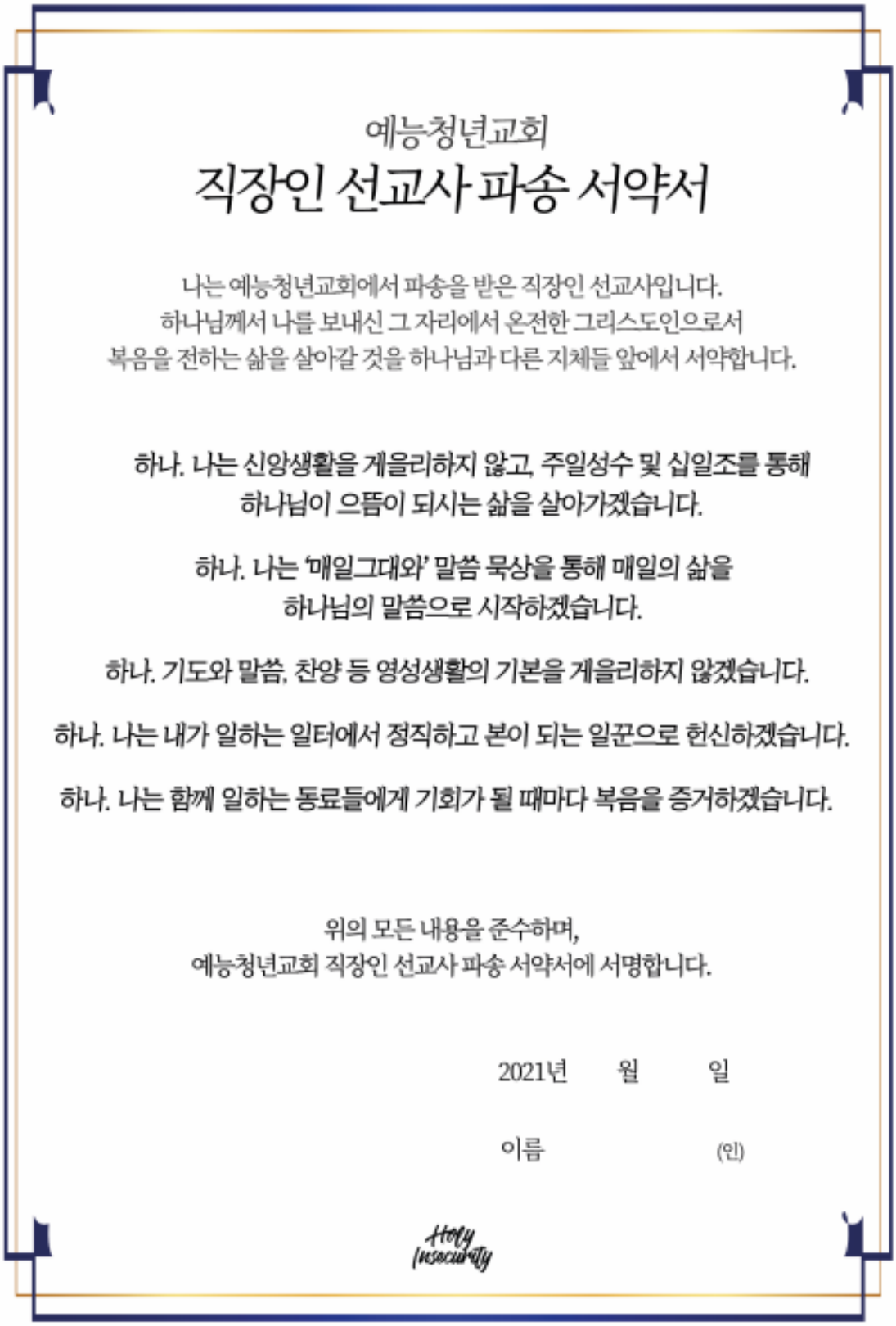
(그림18) 평창동 주민센터와 협력한 원데이 아웃리치

직장 선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냄 받은 선교지는 해외에도 있고, 국내 어려운 농어촌과 지역사회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 삶의 현장일 것이다. 그래서 일년에 몇회 하는 아웃리치 사역 이외에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비전을 제시하였다. 예능청년교회는 일정 기간을 해외 또는 국내 아웃리치로 헌신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인 선교사를 모집하여 교육 후 임명하고 파송한다. 직장인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 시간에 직장에서 동료들 또는 신우회 회원들과 예배를 드리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 때 직장인을 위한 예배를 유투브를 통해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교역자들도 직장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청년과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향력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림19) 직장인 선교사 모집 포스터



예능청년교회

직장인 선교사 파송 서약서

나는 예능청년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직장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일성수 및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이 으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그대와'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기도와 말씀, 찬양 등 영성생활의 기본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정직하고 본이 되는 일꾼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며,
예능청년교회 직장인 선교사 파송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2021년 월 일

이름 (인)

Holy Insecurity

(그림20) 직장인 선교사 서약서

2. 참여적 교회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경험' 은 곧 '참여' 를 유도하게 된다. 우리는 '참여의 시대(age of participation)' 를 살아가며,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작용하는 기질 안에서 살아간다. 예능청년교회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경험적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람자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a. 청년들의 주체성

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

예능청년교회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건강한 의사결정 기구를 가지고 있다. 청년교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장년교회의 당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다. 예능청년교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예능장년교회 담임목사, 청년교회 담당목사, 청년교회 담당장로, 팀장 및 공동체 리더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정기운영위원회는 월 1회 열리고 있으며 헌금과 재정 및 청년 사역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사역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재정집행에 관한 것들을 다룬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기존의 당회나 리더십이 결정한 내용을 통보 받거나 그것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던 청년들의 모습과 다르게 청년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직접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사역을 논의하면서 청년들은 주체성과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

예능청년교회는 매년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열어 장년교회와

동일하게 예산안(수입과 지출)과, 재정감사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모든 회원에게 보고하고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청년들은 그동안 교회의 재정 불투명성에 대한 불신으로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 청년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원하며, 자신이 봉헌한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분명히 알고 싶어한다.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의 모든 내역을 공개하니, 청년들의 봉헌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자신의 봉헌이 청년공동체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회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정확히 앎을 통해 뿌듯함 또한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예능청년교회는 매년 하반기에 정책운영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인사운영위원회을 개최하고 이런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정책, 예산안, 인사 등을 모두 정리하여 청년 구성원들에게 보고하고 그것이 상세히 기록된 목회계획서를 매년 12월에 청년회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이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교회의 모든 정책과 예산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주체성을 갖게 되는 청년들은 교회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은 더 커지고 모든 일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동참하게 된다.

(그림 21) 예능청년교회 운영위원회

(그림 22) 예능청년교회 공동의회

(그림 23) 예능청년교회 목회계획서

(표 5) 예능청년교회 목회계획서 헌금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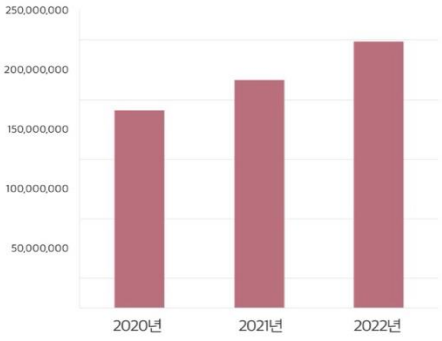
2022 **헌금통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합계
1월	11,331,237	2,452,400	3,617,129	2,517,600	6,940,496	26,858,862
2월	2,713,400	2,964,000	2,268,334	6,027,470		13,973,204
3월	5,172,184	4,339,500	8,016,513	7,343,119		24,871,316
4월	3,908,834	2,985,500	6,338,494	2,168,000		15,400,828
5월	4,596,209	3,523,520	3,525,460	2,582,501	5,269,053	19,496,743
6월	4,731,537	4,395,725	1,752,338	5,886,935		16,766,535
7월	4,795,275	4,646,710	2,153,828	2,456,000	10,055,538	24,107,351
8월	2,591,500	4,501,040	1,365,500	6,331,825		14,789,865
9월	3,983,970	4,320,320	4,075,091	5,575,722		17,955,103
10월	4,707,701	3,767,585	3,249,890	2,422,600	3,734,404	17,882,180
11월	5,706,200	4,545,380	3,100,000	6,823,822		20,175,402
12월	4,431,500	4,836,000	2,198,239	-		11,465,739
			합계			**223,743,128**

2022 **항목별 헌금통계**

	십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절기헌금	기타헌금	합계
연간총액	167,486,014	28,136,070	22,582,884	2,040,000	3,498,160	223,743,128
2021년	150,321,522	14,682,660	23,357,608	2,876,500	30,000	191,268,290

* 연간 헌금 통계는 **당해년도 12월 3째주까지의 헌금 내역으로 결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예산 결산

• 2022년 수입예산(12월 3째주까지 예산으로 집계)

223,743,128원

* 전년 대비 16.9% 증가

연도별 **헌금 증감 현황**

13

(표 6) 예능청년교회 목회계획서 예산안

2023 **예산안**

2023년도 예산			
항목		내용	금액
사례	심성수 목사 사례	기본급	32,193,000
	이명신 전도사 사례	기본급, 명절상여금, 중식비, 통신비, 차량지원비, 월세지원비	33,880,000
	박종일 전도사 사례	기본급, 명절상여금	20,760,000
	이승현 목사 사례	기본급, 명절상여금	21,960,000
	목회지원	목회활동비, 교통 지원	9,200,000
소계			117,993,000
예배	예배안내(레비팀)	분기별모임, 예배준비물품, 수련회	720,000
	찬양(워십메이커스)	운영비, 악기유지보수, 전문사역자 사례, 수련회	19,310,000
	YCM(영상&미디어)	운영비, 수련회	960,000
	메타노이아 주중예배	상하반기 주중예배	1,000,000
	절기예배	사순절,종려주일,부활절,추수감사,대림절,성탄절	1,200,000
소계			23,190,000
양육	양육팀(일대일, 출애굽기 등)	수료식, 리트릿, 교재구입, 운영비, 출애굽기 소그룹, 일대일양육	2,820,000
소계			2,820,000
사역	재정팀	운영위원회, 운영비, 대표진모임, 수련회, 재정세미나	3,390,000
	새가족팀	새가족큐티인, 환영간식, 비품, 수련회, 과자박스, 복음학교	4,520,000
	웰커머스(새가족섬김이)	운영비, 웰커머스 리트릿, 수련회	2,500,000
소계			10,410,000
공동체	공동체 연합 사역	스승의주일, 성년의날, 어버이주일, 써밋	3,100,000
	꿈공동체	프렌즈, 순장모임, 수련회, 아웃팅지원, 예배 번개모임	5,300,000
	별공동체	순장모임, 수련회, 아웃팅지원, 별공동체 또래모임, 동아리 사역	6,100,000
	빛공동체	순장모임, 수련회, 아웃팅지원, 봉사활동, 직장인 기도모임	7,080,000
	팀장단 정기모임	월별 팀장 전체 모임	960,000
	리더십 수련회	청년교회 전체 리더십 수련회	2,500,000
	춘하추동	신혼부부 정기 모임	1,500,000
소계			26,540,000
선교	선교사역 전체	직장인선교, 아웃리치, 타문화선교, 목회자선교지원, 하기선교	24,100,000
	선교팀	사랑의박스, 수련회, 운영비, 선교학교	3,810,000
	미디어전도부	미디어전도(SNS 관리, 영상제작, 홍보)	1,000,000
	청년교회 선교사 후원	정지윤 선교사 (인도), Boy Boyrio Sinaga (인도네시아 스따르신학교 스탭 / 윤용호 선교사) Doni Sibarani (인도네시아 스따르신학교 스탭 / 윤용호 선교사)	7,200,000
소계			36,110,000

40

항목		내용	금액
목회	교역자수련회	연간 기획, 목회 연구 등	1,200,000
	말씀사역	큐티인 지원	200,000
	목회사역행정	목회행정, 목회기획, 교역자회의, 심방전도물품	11,500,000
	러브액츄얼리	캠퍼스, 직장 사역	3,600,000
	또래모임	꿈공동체	2,400,000
	수련회 사역	직장인 수련회, 꿈공동체 수련회, 국내 비전 트립	13,000,000
소계			31,900,000
비품/서무	행정서무비	비품 / 서무	2,000,000
	스타리아 장기렌트	60개월 장기렌트 월납입금	4,932,000
	김미희 사무장 재정봉사료		1,200,000
소계			8,132,000
특별기획	교육부 성경학교 지원	교육부 8개부서 지원	2,400,000
	청년세미나		2,000,000
소계			4,400,000
합계			261,495,000

2023 청년교회 자산

항목	내용	금액
자산	2022 청년교회 자산(2022.11.27)	125,777,971
	워십메이커스 음원 스트리밍 누적 금액(2017.06-2022.11)	7,468,692
합계		133,246,663

3. 이미지 지향적 교회

a. 예능청년교회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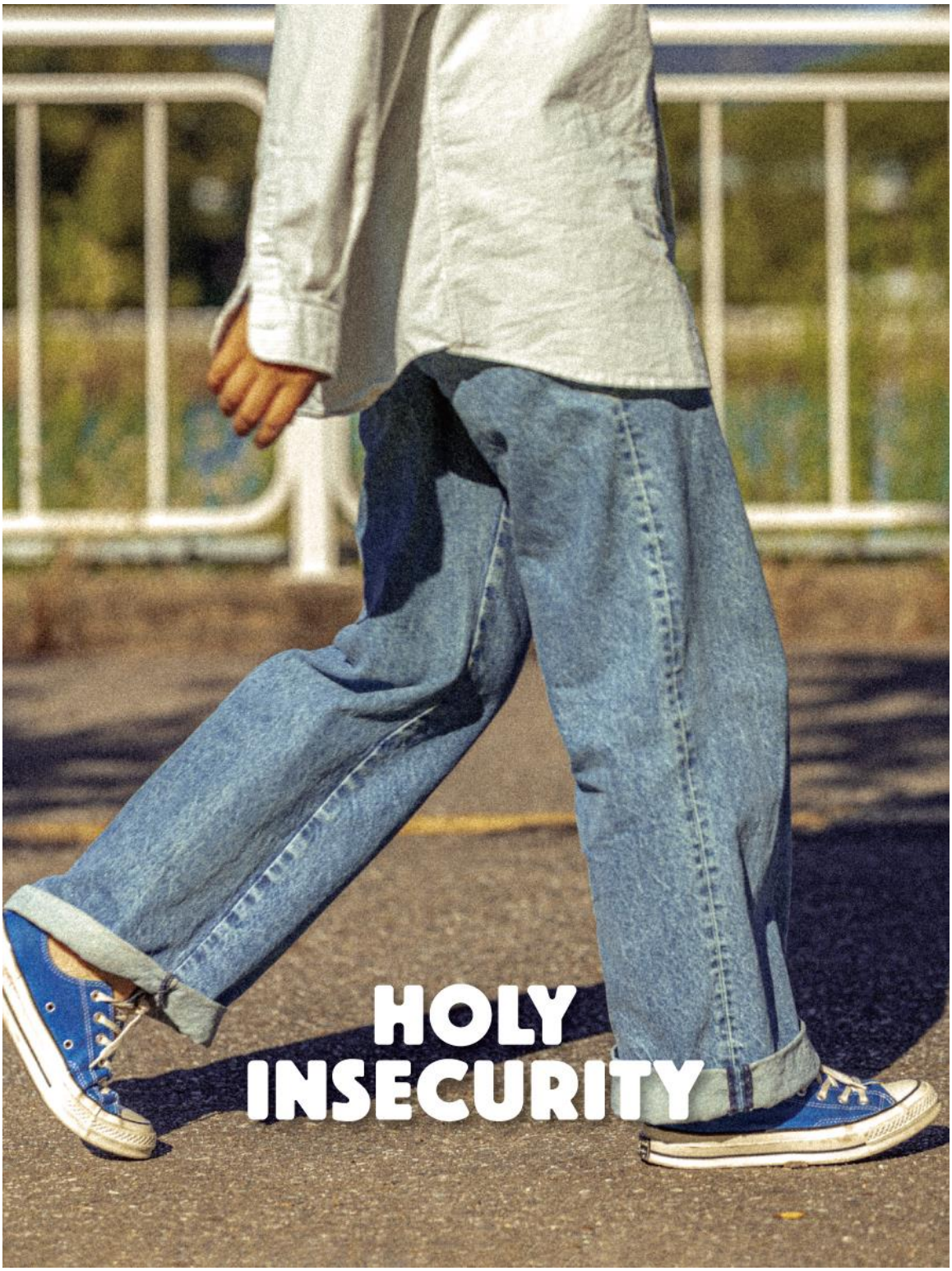
Holy Insecurity(거룩한 불안정):

예능청년교회는 독립교회라는 것만으로도 다른 청년공동체들과 차별화가 되었고 어느정도 지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능청년교회만의 분명한 교회 브랜드가 필요했다. 뉴노멀 시대, 그리고 청년세대에게는 브랜딩 그리고 이미지가 중요하다. 스타벅스가 브랜드의 독특한 이미지를 심어놓고 그것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것처럼 우리는 이미지와 은유로 기업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고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이미지와 은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브랜딩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스윗은 말한다.예능청년교회도 청년들만의 이미지와 브랜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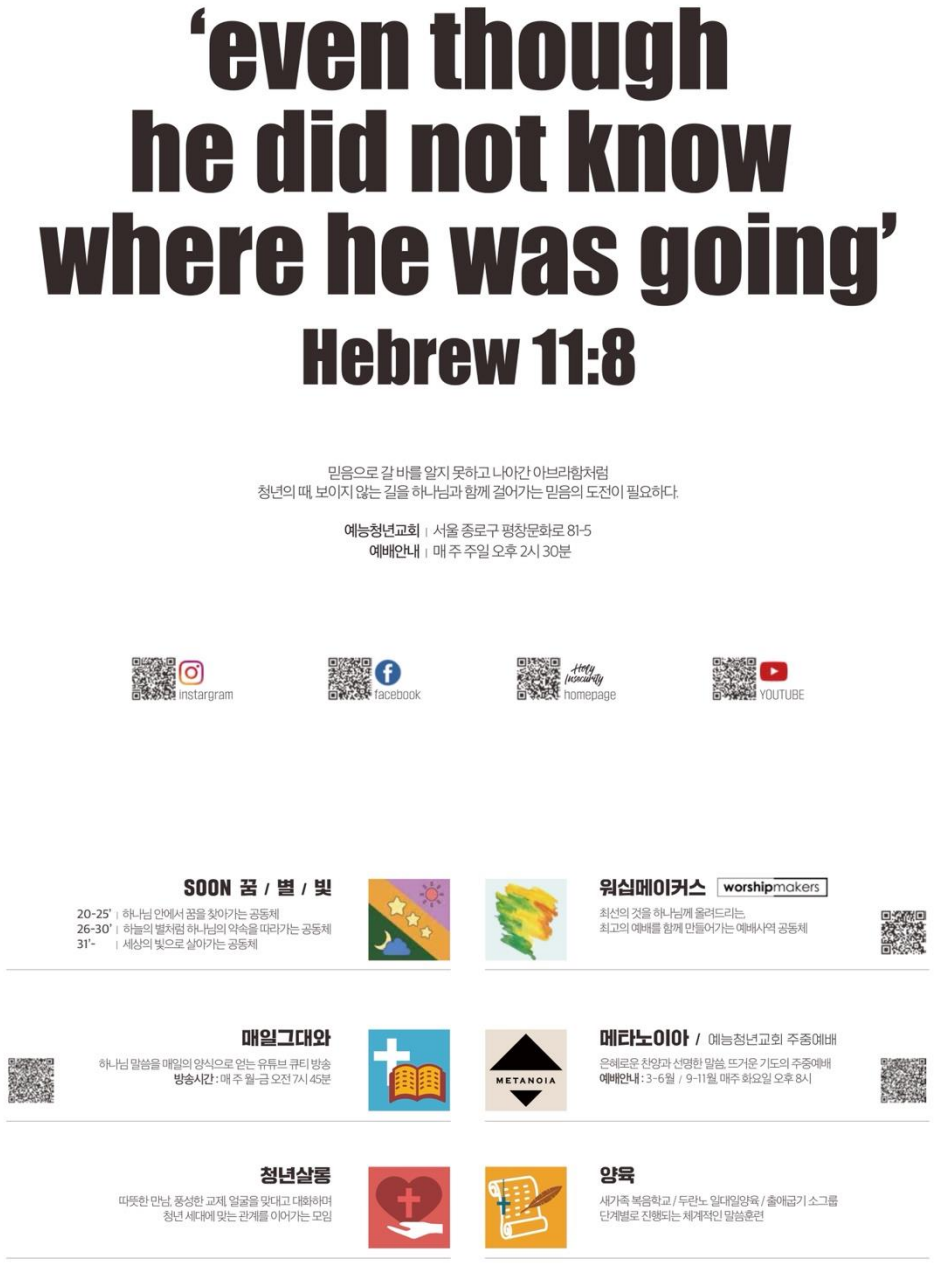
예능청년교회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핵심 구절로 삼았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간 것처럼, 청년들도 불안정한 삶과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늘 예능청년교회를 소개할 때도 교회의 이름보다도 Holy Insecurity라는 브랜드와 로고를 앞세우기 시작했다. 많은 청년들도 Holy Insecurity라는 브랜드를 예능청년교회와 연결시키게 되었다. 예능청년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그 이미지를 표현함으로 브랜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예능청년교회를 소개하는 안내 브로셔나 전도지에도 최대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글을 줄이고 이미지와 상징적인 로고를 사용해서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청년을 잘 드러내는 청바지와 떠남과 도전을 의미하는 발걸음과 과정과 여정을 보여주기 위해 걷는 모습을 앞면에 넣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정보는 뒤로 하고 가장 핵심적인 모토인 Holy Insecurity(거룩한 불안정) 전면에 내세웠다. 아래 그림과 같이 안내지를 4등분으로 접어서 두개를 나란히 옆으로 배치하면 더 강렬하게 공동체가 추구하는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디자인을 했다. 뒷면에도 핵심적인 모토인 Holy Insecurity(거룩한 불안정)의 핵심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8절을 전면에 배치했다. 글로 예능청년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기 보다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 유투브로 접근하여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동체가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그림 24) 예능청년교회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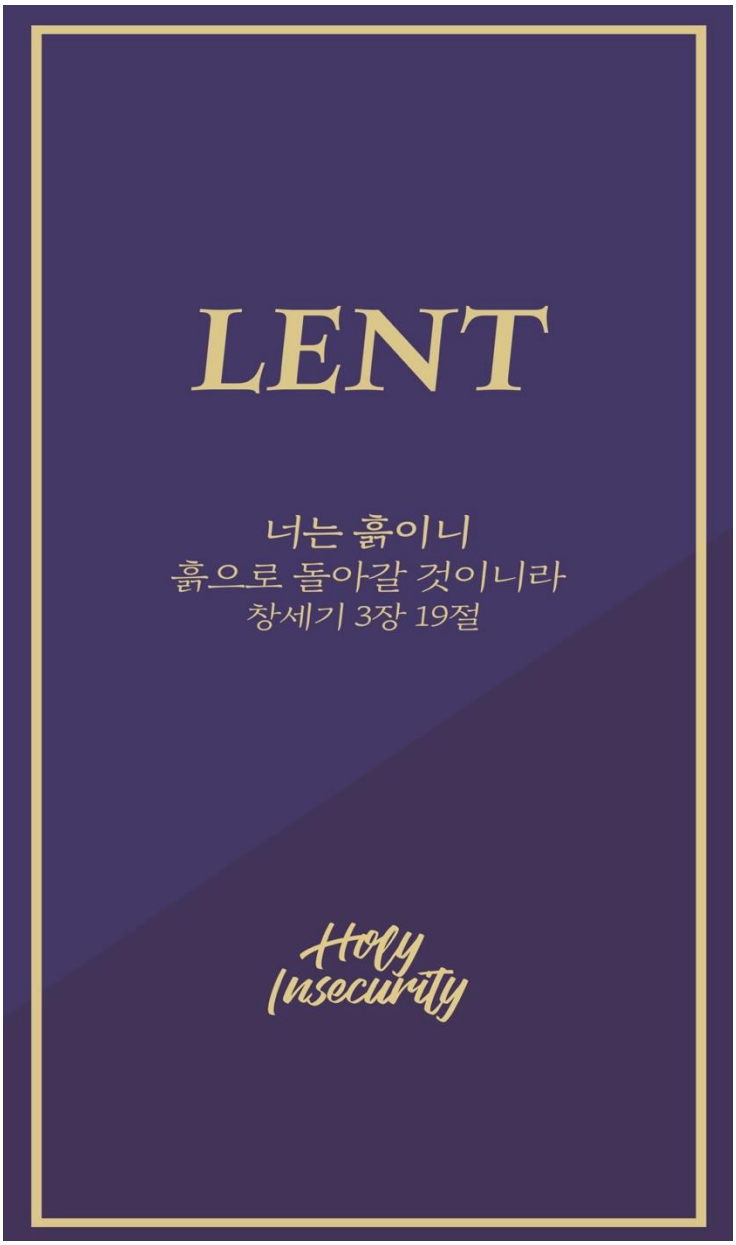


(그림 25) 예능청년교회 홍보이미지



(그림 26) 예능청년교회 홍보이미지

예배 속에서도 절기에 맞는 분위기로 무대를 꾸미고 절기에 맞는 색상을 사용해서 색으로 절기를 알고 예배의 차이점을 느끼도록 했다. 예배 강대상 천도 딱딱하고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디자인한 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역시 Holy Insecurity라는 이미지를 내세움으로 청년들이 예배 때마다 공동체의 모토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했다.



(그림 27) 사순절 강대상 천

(그림 28) 성령강림주일 강대상 천

예배 마다 청년들이 디자인하는 이미지와 장식들로 시각적인 효과들을 더할 뿐만 아니라 예배와 청년교회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와 말씀의 의미를 청년들의 뇌리에 더 각인 시키게 된다.

(그림 29) 대림절 무대 디자인

(그림 30) 성금요일 예배 디자인

4. 상호작용적 교회

예능청년교회는 예능교회 안에서 독립한 교회이지만 예능장년교회와 함께 공존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청년교회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도 장년들과 소통하고 특별히 섬길 수 있는 자리마다 앞장서서 섬겨왔다.

시니어 효도여행:

섬김을 받고 지원을 받는 청년에서 이제는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섬기는 청년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별히 2023년 9월 11-13일 장년교회 내에 홀로 사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주도 효도여행을 진행했다. 여행의 모든 비용과 기획 및 진행은 청년교회에서 주도했다. 이를 통하여 참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시니어 세대와 청년 세대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합되는 아름다운 경험들을 교회가 할 수 있었다.

(그림 31) 예능청년교회 시니어 효도여행 단체사진

(표 7) 예능청년교회 시니어 효도여행 기획안

1. 전체 일정표

일자	교통	시간	일정	비고
1일차 (09.11 월)	45인승버스	10:00-11:00	**교회모임 :** 차량 탑승 및 출발	
		11:00-12:00	**아점식사 :** 김가네설렁탕 : 설렁탕	
	항공	12:20-13:40	**김포공항 도착** & 수속	
		13:40-14:50	**김포공항 → 제주공항** : 이스타항공 ZE217편	13:40 항공편 출발
	45인승버스 승합차	15:30-16:30	**용연 & 용두암 :** 제주 여행의 시작. 기분좋은 산책로	
		16:30-17:30	**이호태우해변 :** 제주도 랜드마크, 말 등대를 볼 수 있는 해변	
		18:00-19:00	**저녁식사 :** 바다만찬 : 회정식	
		20:30-	**숙소 체크인 후 개인정비 및 취침**	
2일차 (09.12 화)	45인승버스 승합차	06:00-07:00	기상 & **경건회**	**세미나실 이용**
		07:00-09:30	**아침식사**(호텔조식) & 개인산책	
		11:00-12:00	**워터서커스 :** 환상적인 볼거리가 있는 수중 낙하 다이빙쇼	11:00 공연시작
		12:10-13:00	**점심식사 :** 성읍 신토불이 : 토종돼지불고기	
		14:00-15:00	**천지연폭포 :**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루어진 연못	
		15:20-16:30	**서귀포 유람선 :** 범섬 & 문섬 조망	15:20 출발
		16:30-17:00	**새섬 & 새연교 :** 서귀포 대표 명소	
		17:30-18:30	**저녁식사 :** 덤장상차림상 : 고등어구이, 갈치조림, 보말미역국	
		19:00-20:30	**숙소 체크인 &** **전체모임**(기도회)	**세미나실 이용**
		20:30-	개인정비 및 **취침**	
3일차 (09.13 수)	45인승버스 승합차	06:00-07:00	기상 & **경건회**	**세미나실 이용**
		07:00-0830	**기상 및 아침식사**(호텔조식) / 개인산책 + **체크아웃**	
		09:00-10:00	**방주교회 방문** 및 티타임(음료제공)	
		10:30-11:30	**더마파크 :** 징기츠칸의 후예들' 전문적인 기마공연	10:30 공연시작
		12:00-13:00	**점심식사 :** 전복해물전골 + 옥돔구이	
		13:30-14:30	**생각하는 정원 :** 아름다운 분재와 함께하는 산책	
		14:30-15:30	**족욕체험 :**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족욕체험	
		16:30-17:30	**저녁식사 :** 화목원 : 향토한정식	
	항공	18:00-19:30	**공항 도착 및 대기**	
		19:45-20:55	**제주공항 → 김포공항** : 이스타항공 ZE228편	19:45 제주 출발
	카풀	21:20-	**귀가** **청년 카풀 섬김이 배치**(어르신들) - **이승현 목사 담당** **스타리아 + a 배치**(회의 필요 : 청년섬김이 + 교역자 귀가용)	

2. 인원정보

#01. 시니어참가자

	성함	성별		성함	성별		성함	성별
1	강우종	남	10	김춘자	여	19	최귀례	여
2	백남진	남	11	박경자	여	20	유희순	여
3	백학주	남	12	최선자	여	21	김정숙	여
4	이휘주	남	13	박행자	여	22	김신행	여
5	한성수	남	14	박금자	여	23	김용화	여
6	신금례	여	15	김용순	여	24	김정선	여
7	백옥희	여	16	김희옥	여	25	강원주	여
8	황필은	여	17	이정옥	여	26	서남희	여
9	허충회	여	18	조금자	여	27	이지연	여

#02. 청년섬김이

	이름	성별		성함	성별		이름	성별
1	임재현	남	5	김나정	여	9	최유리	여
2	이사운	남	6	장지민	여	10	함지수	여
3	이호진	남	7	박현진	여	11	박예림	여
4	강해원	여	8	이하나	여			

#03. 교역자

	이름	성별		성함	성별		이름	성별
1	김현주 목사	여	3	나광균 목사	남	5	박종일 전도사	남
2	심성수 목사	남	4	이명신 전도사	남			

3. 숙소정보

더 그랜드 섬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막숙포로 118 / 064-800-7200

- **신관** : 시니어, 청년섬김이 사용 / 구관 : 교역자 사용
- **세미나실 사용** : 총 3회(화 새벽, 화 저녁, 수 새벽)
- **조식 제공**(07:00 부터)
- **수영장**(수영복, 수영모 착용필수) 09:00-20:00 사용가능
- **사우나** 07:00-21:00 사용가능

4. 출발편

#01. 예능교회 -> 김포공항

Time Table

- **집합** : 오전 9시 30분 - 예능교회
- **출발** : 오전 10시
- **식사** : 오전 11시 - 김가네 설렁탕(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52) * 약 40분 소요
- **공항도착** : 김포공항 국내선 13시 40분 ZE217편 탑승 준비 * 식당에서 약 10분 소요

차량

- **하나투어에서 45인승 대절** 완료 / **참가자 전원 탑승**

#02. 제주공항 차량 픽업

Time Table

- **제주도착** : 14시 50분 예정
- **용연&용두암 관광** : 15시 30분 * 공항에서 10-15분 소요

차량 픽업 및 이동

- **45인승 버스** : 하나투어 담당자 안내에 맞춰 **공항 입구에서 탑승**
  탑승자 : **시니어 전원 / 청년섬김이 전원 / 김현주 목사**
- **승합차 렌트** : 하나투어 담당자 차량으로 **렌트카 픽업 장소로 이동**(심성수 목사, 나광균 목사, 이명신 전도사, 박종일 전도사)
  렌트카 픽업 후 **용연&용두암으로 바로 이동**
- **승합차 운전자 등록** : 이명신 전도사, 심성수 목사 / 박종일 전도사, 나광균 목사

렌터카 업체 정보

- **제주엔젤렌트카** : 제주시 도령로 171-1 * 공항에서 5분 / * 용연&용두암까지 10-15분
- **렌트카 반납은 이곳으로** 진행(담당 : 이명신 전도사, 박종일 전도사)

*** 용연&용두암 관광 이후 차량편성**

- **45인승** : **시니어 전원 / 김현주 목사 + a(교역자)**
- **승합차** : 이명신 전도사, 박종일 전도사, 심성수 목사, 나광균 목사 / **청년섬김이 전원**

5. 도착편

#01. 화목원(저녁식사) -> 제주공항

Time Table

- **저녁식사** : 16시 30분 - 17시 30분 - 화목원(제주시 연화남길 41) * 제주공항까지 16분 소요
- **공항도착**, 수속 및 대기 : 18시
- **항공편 출발** : 19시45분 ZE228편 —> 김포공항 **20시 55분 도착 예정**

차량 반납 및 이동

- 화목원 식사 후 **승합차 운전자(이명신, 박종일) 제외 전원 45인승 탑승**
- 45인승은 제주공항으로 바로 이동하여 하차 / **승합차는 렌터카 업체에 반납 후** 렌터카 셔틀을 타고 추후 공항으로 합류

** 확인사항

- **최선자 권사님 일정 동행을 어디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다음주까지 따로 제주에 계시기 때문)
  1) **최선자 권사님을 모시고 갈 차량**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따로 모셔다 드려야 하는 것인지?
  2) **생각하는정원, 족욕체험장은 서귀포 방면**이며, 저녁식사인 **화목원부터는 제주 방면**이기에 어디까지 합류하실지 최선자 권사님 일행과의 조율 및 확인이 필요

#02. 김포공항 -> 카풀 섬김이

Time Table

- **공항도착** : 20시 55분 // 넉넉히 공항을 나오면 **21시 30분 예상**
- 카풀 섬김이 차량 대기 후 배정된 인원들 탑승하여 모셔다 드림

차량조율

- **카풀 섬김이** : **전체 담당자 이승현 목사**
- 현재 **카풀 신청자 6차량(18명 시니어 탑승 가능 상황)**
- ** **시니어 전원 주소 확인 필요 // 어르신들 중 집에서 따로 픽업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 필요**
  (체크 : 나광균 목사님, 김현주 목사님)
- **25인승 교회 차량 예약 스타리아 + a 필요** : 교역자 및 청년섬김이 11명 교회로 이동 차량 *** 25인승 통일선교부 행사로 예약불가**

6. 준비물

- 2박 3일 관광에 필요한 가벼운 복장 및 운동화
- **개인 세면도구 지참**
  *** 객실 어매니티** : 일회용 칫솔&치약, 비누, 바디워시, 바디로션, 샴푸, 컨디셔너 구비되어 있음 / 참고하여 준비
- 선글라스 및 모자 필수

7. 방배정

#01. 시니어 (신관배정 / 2인 1실)

	성함		비고	
1	한성수	이휘주	남성	
2	백남진	강우종		
3	백학주			1인실
4	조금자	유희순	여성	
5	최귀례	김정선		
6	백옥희	김춘자		
7	박경자	김정숙		
8	허충회	신금례		
9	김용화	이지연		
10	최선자	황필은		
11	박금자	김용순		
12	김희옥	이정옥		
13	서남희	박행자		확인필요
14	김신행	강원주		

#02. 청년섬김이 (신관배정 / 2인 1실)

	성함		비고	
1	임재현	이호진	남성	
2	이시운			1인실
3	이하나	최유리	여성	
4	장지민	박현진		
5	강해원	김나정		
6	박예림	함지수		

#03. 교역자 (구관배정 / 2인 1실)

	성함		비고	
1	김현주		여성	1인실
3	심성수	나광균	남성	
4	이명신	박종일		

8.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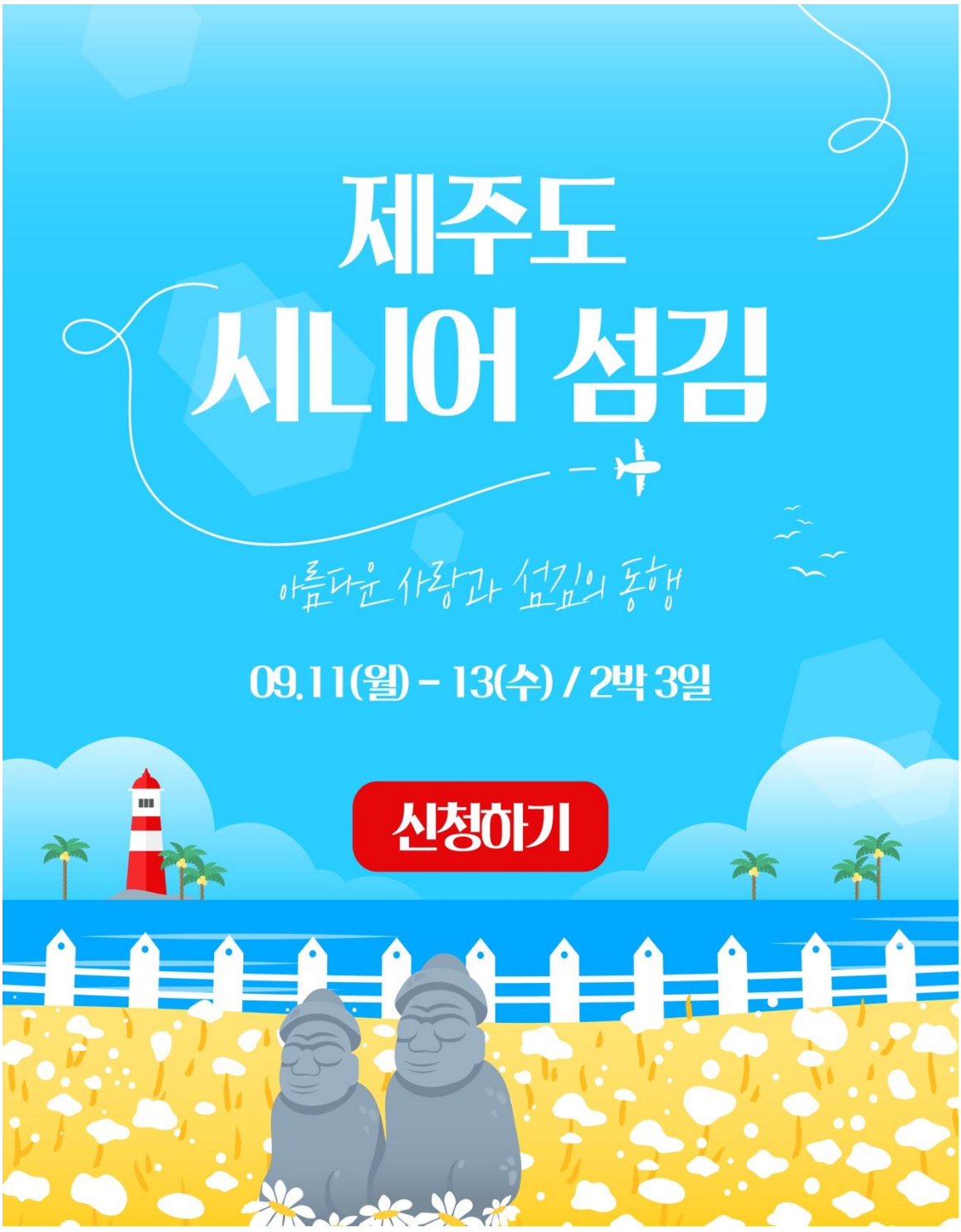
#01. 지출

항목	내용	예산
전체 진행비	하나투어 인보이스	27,000,000
운영비	카메라 장비 렌탈 렌즈 : 캐논 RF 28-70 F2 마이크 : RODE Video Mic Pro Plus	128,000
	스탭 감사 : 하나투어 직원 등	600,000
	운영비 / 현장 음료 및 간식 등	1,200,000
	현장 답사	489,100
합계		**29,417,100**

* 인보이스 입금은 다음주 수요일까지(9월 6일) 2,400만원 입금 (300만원 계약금 선입금함)
* 국민은행 (447390-12-574995) / 예금주 : 하나투어 0911
- **청년교회 예산 2,200만원 + 후원금 100만원으로 인보이스 입금 진행**
- 나머지 운영비 전액 후원금 예산에서 진행

#02. 수입

항목	예산
청년교회 특별예산	25,000,000
후원금	7,099,000
합계	**32,099,000**



(그림 32) 시니어 효도여행 포스터

V. 결론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해결방안이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교회도 급격한 변화와 심각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특별히 세대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재정적인 위기가 한국교회의 거대한 숙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에 굳이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개인이 가장 우선시 되는 시대가 왔으며, 청년세대는 기존의 권위를 거부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한다. 생존과 자립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개인의 삶을 위해 홀로서는 시대가 도래했기에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었고, 비대면 시대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대면 소그룹 모임에 대한 책임과 인식도 또한 많이 약화되었 교회 공동체성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청년세대의 변화 그리고 어느 한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구속 받기를 거부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접근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나 경제성장 정체 문제는 한 개인이나 한국교회가 대안을 만들 수 없는 국가적, 사회적 과제이지만. 한국교회 그리고 청년목회 현장이 대안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변화를 제한적이지만 청년목회 현장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에서 청년목회의 대안을 찾고 제시했다. EPIC이론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수동적으로 구경하고 따라가기만 하는

교회가 아닌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목회현장, 그리하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목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과 자리를 잘 준비하고 마련해야 하며,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있도록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와 코카콜라와 같이 이미지와 은유적 스토리도 교회가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미지에 담아 표현하고 브랜딩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홍보해야 청년세대들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와 역학을 알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나 세상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만들어 가야한다.

이러한 EPIC이론의 요소와 신학을 통합적으로 목회현장에 적용하고 담아내는 것은 분명히 큰 도전이다. 그러나 이 안에 분명 뉴노멀 시대 청년목회를 위한 대안이 담겨 있고, 예능청년교회 목회현장을 그 모델로 제시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국내서적

김난도 외.『트렌드코리아 2024』 서울: 미래의 창, 2023.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서울: 규장, 2022.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4』서울: 규장, 2023.

송길영.『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서울: 교보문고, 2023.

최윤식.『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난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3.

홍성국,『수축사회』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8.

번역서적

Leonard Sweet.『교회, 스타벅스에 가다』이지혜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Leonard Sweet.『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Leonard Sweet.『미래 크리스천』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5.

Leonard Sweet.『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학술논문

성창훈. 세계화의 재구성, 대응은?, 『나라경제』, 382. 2022.

삼일PwC경영연구원. (2023). 인구구조변화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Insight Flash』2023.

이삼식. 초저출산현상 극복과 인구구조변화대응, 『아시아 브리프』, 3(26), 2023.

신문기사

뉴시스. “결혼식 비용만 5 천만원…스드메 가격 공개 효과 있을까” *동아일보*. 2024 년 3 월 17 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317/124005916/1

송주열. “통계로 본 장로교단, 교인수 감소 브레이크가 없다” *노컷뉴스*. 2022 년 9 월 27 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824096

신은정. “청년 ‘가나안 성도’ 늘어…19~29 세 45% 최다” *국민일보*. 2024 년 1 월 23 일,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76

안태호. “30~34 살 청년 56.3% ‘미혼’…30 년 뒤 청년 인구 11% 급감” *한겨레*. 2023 년 11 월 27 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7986.html

웹사이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갤럽리포트,” 2021 년 4 월 7 일,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SpiritVenture Ministries. “Leonard Sweet,” 2022, https://leonardsweet.com/about/ .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eongsoo S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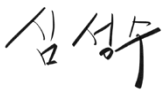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Aug 2, 1980

Parent`s Names: Hyuntaek Sim and Onam Ahn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Secondary:	**Hwanil High School** 47, Hwanil-gil, -gu, Jung-gu, Seoul, Korea	Diploma	Feb 12, 1999
Collegiate:	**Kyung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B.A	Feb 20, 2008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Korea	M.Div	Feb 21, 2013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eongsoo Sim

Name typed

February 29. 2024

date